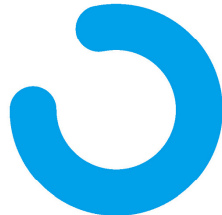


2021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21. 12.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CONTENTS



I.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1. 10년간 잃어버린 어릴 적 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용기 6
2.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잘 활용하는 법 11
3. NCS 분석을 통한 공공기관 입사 과정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위한 조언 16
4. 경단녀, 워킹맘의 꿈을 이루다 21
5. 취업, 남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25
6. 나무(전형) 대신에 숲(NCS)을 보자 30



II. 청년인턴

1. 5개월의 기적, 청년인턴에서 주임으로 38
2. 시민금융진흥원의 1기 인턴, 그중 첫 번째 입사자가 되다 42
3. 청년인턴, “희망고문” 아닌 “희망”이다 47
4. 청년인턴, 고민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52
5. 청년인턴제도, 제 취업 성공경험의 기반입니다 57
6. JOB을 잡는 선순환제도 ‘청년인턴’ 61



Ⅲ. 고졸 채용

1. 모든 목표는 100M 달리기보다 아닌 마라톤	70
2.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졸도 가능해요!	74
3. 유쾌한 반란	78
4.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해냈습니다	82
5. 4년 전의 나에게 20살의 내가...	87
6.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91



Ⅳ. 지역인재 채용

1. 306번의 도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마주한 최종합격	98
2. ‘나’를 탐구하여 찾아낸 공공기관 취업문	103
3. 지역인재: 겨울을 이겨내는 빛	107
4. 모든 것에 헛된 경험은 없었다!	111
5.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사회’ 활성화로	116
6. 언제나 긍정적이고 솔기롭게	121



Ⅴ. 장애인 채용

1. 나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선다	126
2. 청각장애 청년의 4년간의 일기, 그리고 5가지 이야기	130
3. 느리지만 강한 나의 성장기	135
4. 우리도 당당히 밥벌이합시다!	140
5. 망설임을 넘어 도전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144
6. 다시 시작할 준비	148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l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side.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 1 10년간 잃어버린 어릴 적 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용기
- 2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잘 활용하는 법
- 3 NCS 분석을 통한 공공기관 입사 과정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위한 조언
- 4 경단녀, 워킹맘의 꿈을 이루다
- 5 취업, 남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 6 나무(전형) 대신에 숲(NCS)을 보자

10년간 잃어버린 어릴 적 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용기

한국관광공사 | 박○○



교복을 입고 등학교하던 어린 시절부터 간절했던 꿈이 10년 넘게 응어리진 마음으로 남아, 이미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괴롭힌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나이는 벌써 서른을 넘겼고 그동안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쌓아온 스펙도 딱히 없어서 영영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및 NCS기반 채용 하나만을 믿고 10년간 잃어버린 어릴 적 꿈을 되찾은 제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 드리겠습니다.

영어공부에 재미를 붙인 고등학생 때부터 저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처음엔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하다가, 이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 자연 등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올렸습니다. 수많은 외국인 유저들이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였냐며, 꼭 방문하고 싶다고 댓글을 남겼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도 즐거워서 고3 때도 유튜브를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 종종 활용했던 콘텐츠가 바로 대한민국 정부포털 KOREA.net에 꾸준히 올라왔던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 외국인에게 보여주는 한국관광 홍보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사실 막연히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것이 좋았을 뿐이지 이것을 나의 진로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던 고교 시절,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을 보고 ‘그래, 바로 여기야’라는 생각이 들며 공사에서 일하는 것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도 통번역을 전공하며 제 꿈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나, 넉넉 않은 형편으로 어려운 고비에 계속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유학을 너무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은행에 빚을 지고 스톡홀름에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늘 쉬지 않고 했으나 유학비용을 감당하기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짧은 6개월이었지만 70명이 다녀간 대규모 한식파티 기획 등 저는 제 꿈에 한 발짝 다가간 듯 무척이나 행복하고 알찬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귀국하고 나서 저는 유학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주어진 일이라면 무엇이든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제 성격 탓에, 학원 장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금세 인정받고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래 학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쉽사리 그만두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됐고,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제 직업으로 거의 굳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사 입사를 위한 준비를 하기엔 이미 취업을 마친 대학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게 내 길인가보다'라며 체념하고 꿈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퇴근 후 한국관광공사의 홍보영상이나 그밖에 다양한 한국문화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곤 했고, 그래도 허전한 마음 한구석을 달랠 수는 없어 몹시 괴로웠습니다.

다행히도 강력한 모종의 계기에 의해서 하던 일을 과감히 그만두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로 돌아가 늦깎이 학생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소위 '대외활동'이라는 것도 처음 해봤습니다. 틈만 나면 국내여행도 부지런히 다니고, 외국인 친구들과 우리나라 전통문화 체험도 하면서 제 꿈을 두 번 다시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주 느렸지만, 그래도 조금씩 꿈을 향해 진일보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군복무까지 마치고 나니 제 나이도 서른이 되었고, 가뜰이나 취업난이 극심한 시기에 '내가 이제야 도전하는 게 맞는 걸까?' 싶었고 불안했습니다. 취준생들 사이에 유명한 취업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보면 제가 가진 초라한 스펙으

로 다들 가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에 입사를 꿈꾸는 것조차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조차 저의 도전에 대해 회의적이었고, 자신감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책상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2016 공직박람회”에서 받은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관련 자료를 발견하였습니다. 마침 한국관광공사도 2020년 신입사원 채용부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도입했던 터라 그 자료를 유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채용기관의 실제 직무와 관계된 능력 기반으로 지원자를 평가하고 그 외의 불필요한 스펙을 보지 않는다는 블라인드 전형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이거나 남들에 비해 비교적 보잘 것 없는 내 스펙에도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제로 필요한 직무능력을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증명해낼 수만 있으면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및 NCS기반 채용을 믿고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입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필기전형이 가장 높은 벽이라고 생각하여, 독서실에서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NCS직업기초능력평가를, 오후에는 직무능력평가 과목인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오답노트는 필수로 작성했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카드를 만들어서 틈틈이 외었습니다. 공부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행복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오롯이 내 꿈을 위해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공부해본 적이 이전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입사를 위한 첫 관문은 서류전형이었지만, 부적격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과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각 질문이 묻는 내용에 대해 가감 없이 솔직히 작성한 뒤 곧바로 제출했습니다. 서류에 적어낸 저의 스펙이라면 외국어성적과 한국사 1급, 5개월 짜리 대외활동 이력이 전부였습니다. 학원 강사로서의 경력은 직무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여 적어내지 않았습니다. 취준생들 사이에서 필수라고 여겨지는 컴퓨터 자격증이나 인턴 경력 하나 없었습니다.

필기시험은 직무능력평가인 경영학은 쉬웠던 것에 반해, NCS직업기초능력평가는 어려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NCS라는 시험 자체가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해야 하는 유형의 시험이기 때문입

니다. 저는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시간을 재며 실전과 같이 연습한 덕분에 시험 당일에 비교적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필기전형은 무사히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면접전형은 1차, 2차로 나뉘는데, 이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취준생들이 면접을 위해 다 같이 모여 스터디를 하고, 심지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면접 학원에서 코칭을 받기도 하는데,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역시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저는 스스로 면접을 준비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보다는 ‘공사가 나에게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무엇일까?’에 초점을 두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NCS직업기초능력평가 주요 요소인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원관리능력의 큰 틀 안에서 이것들을 공사의 직무와 연결 지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통해 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 관련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 장짜리 도표로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와 2차 면접 모두에서 신기할 정도로 준비한 범위 안에서만 질문을 받았고, 큰 무리 없이 면접관들께 답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갈등문제와 관련해서는 1차와 2차 면접 모두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대외활동 경험을 녹여서 답변했고, 공사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평소 오랫동안 한국관광공사에 관심을 가져온 만큼 자신 있게 답하고 저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최종면접이 끝나고 난 직후에 ‘이제 합격했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자신감에 차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관광공사 신입사원 채용 최종합격 소식을 주변에 전했을 때 정말 많은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시기에 취업했다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매력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싶은 단 하나의 꿈을 좇으며 오랜 기간 고투해온 저임을 모두들 알기에, 마침내 한국관광공사에 입사하여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 지난 지금 회사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제가 맡은 업무 하나하나가 결국 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한국을 방문하게 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저 기쁜 마음뿐입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한때 생각했던 공사 입사에 대해 포기하지 않게 용기를 준 공공기관의 NCS 도입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고마운 마음입니다. 만약 저와 같이 공공기관 입사에 대한 오랜 꿈이 있으나 ‘내 나이에 될까?’ 또는 ‘이런 스펙으로 될까?’ 싶어 도전조차 하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입사수기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를 늘 한결같이 안타까워하시며 포기하지 말라고 지지해주셨으나, 정작 그 꿈을 이룬 모습은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친할머니께 바치고 싶다는 말로 글을 줄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를 잘 활용하는 법

한국수자원공사 | 송○○



1. 사회복지학 전공자에게 취업이란?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사회복지학만 공부한 학생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졸업하면 사회복지관이나 보육원에서 근무하는거야?”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면서, 저 역시 ‘졸업하면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곳에 입사하여 ‘물 복지’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복수전공을 하지 않았고, 사회복지학 심화전공을 선택하였습니다. 심화전공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열심히 공부한 덕에 대학교 3학년이 끝났을 때 졸업을 위한 모든 학점을 이수하였고, 1년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4학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 가장 좋을지를 고민했고 그 결과 저는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취업에 대해 무지했던 제가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복지제도의 일환을 통해서 회사에 입사한 과정을 한 번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2. 발로 뛰어서 쟁취하라

본격적인 취업 준비는 4학년 1학기부터였습니다. 저는 4학년 1학기 때에는 수업을 듣지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여유 시간이 많이 있었고 먼저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취업 관련 커뮤니티에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학과 사람들의 취업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학과 선배 중에는 주로 공무원이 됐거나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사기업 등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모를수록 무작정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당시 모교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저의 성향 분석부터 시작해서 제 스펙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추천받기도 했습니다. 수차례의 상담도 받고 학교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기업들의 설명회에 참석하여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느낌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얻은 후에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은 어디인지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탓에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에 조금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성을 먼저 공기업으로 잡고 다음으로 그 공기업들의 업무 특성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중에 하고 싶은 분야를 다루는 기업을 분류하였고 기업들의 채용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3. NCS와 블라인드라는 낯선 단어와 친해져라

대부분의 공기업 채용 계획에는 NCS와 블라인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NCS가 뭔지, 블라인드채용이 대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막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당장 달려가서 그 프로그램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인 강의를 10번 정도 반복 학습 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단계는 먼저 '자기소개서' 작성이었습니다.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서 정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문항에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기소개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 서류 합격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스펙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보면 직무 관련 교육과 경험을 작성해야 하는데, 제가 들은 교육은 '사회복지학' 뿐이었고, 제가 경험한 것은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전부였습니다. 이 스펙으로는 서류전형에 합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스펙 채우기에 돌입하였습니다.



4. 거창한 스펙은 필요없다

여기서 스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4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한 학기 동안에 모든 스펙을 채웠습니다. NCS 기반 채용은 기본적인 스펙만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직무 관련 교육 다섯 가지 정도를, 직무 관련 경험 세 가지 정도를 작성하면 빈칸은 어느 정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학년 2학기 때 경영학·경제학·법학 세 가지를 수강하여 자기소개서에 교육 이수 항목을 모두 채울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NCS 기반 필기시험에 대비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NCS 기반 필기시험을 여러 번 풀어 보다 보니 각 영역별로 제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터디원들과 함께 문제를 풀어 보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했던 세 가지 스터디 중에서 전공 필기 스터디가 가장 어려웠는데 제 전공이 '사회복지학'이었기 때문에 경영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의 핵심이 바로 타 전공자도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대

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취업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기업 대부분 NCS 기반 필기시험이 실시되며, 전공시험만 보는 곳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와 같은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영학과 경제학까지 공부하면서 필기시험에 대한 감을 익히기 시작했고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면접은 '나'라는 사람을 짧은 시간 안에 가장 임팩트 하게 보여줘야 하며 그 시간 동안 면접관이 나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 할 것만 같지만 이 역시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접 역시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면접장 입구에서 들어갈 때부터 나올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컨설팅해 주었습니다. 물론 비싼 돈을 주고 좋은 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은 정보를 얻고 빠른 해답을 찾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발로 뛰는 결과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장에서의 목소리, 표정, 손짓, 자세 등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습을 했고, 이 역시 스터디를 통해서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거의 200번 정도가 넘는 모의 면접을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였습니다. 면접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5. 현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개월간의 인턴 근무를 하면서 현업에서는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였고 면접에서도 현업에서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인턴 근무가 끝나기 전에 '한국수자원공사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면접을 준비하면서 블라인드 채용이 정말 도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전공 면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이었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경영, 경제, 법학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면접을 본다고 하였을 때 살짝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믿었기에 기업 분석에 집중하였습니다. 저처럼 메인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바로 기업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기업의 사업 부서에 당장 투입되어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제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지만 ‘물’을 관리하는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로 학과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학과에서는 공기업은 관련 전공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접근을 하기에는 너무 장벽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한 후에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며 누구나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관심이 있다면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배들이 공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인구 감소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취업난 역시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NCS 기반 채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취업의 문은 활짝 열려 있음을 알기를 바라며, 도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제가 작성한 스텝을 하나씩 밟아나가길 바랍니다.

NCS 분석을 통한 공공기관 입사 과정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위한 조언

한국산업인력공단 | 최○○



1. '무스펙' 영문과 졸업생, NCS를 통해 취업의 돌파구를 찾다

대학 시절 영어영문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학원강사가 되려는 목표를 가졌다. 주변 친구들이 인턴 경험, 자격증 취득, 직업교육 이수 등 소위 스펙을 쌓을 동안 영문학을 공부하며 학원강사 취직을 준비하였다. 대외활동이라곤 학생들의 진로를 상담해주는 멘토링 활동이 전부였다. 졸업 후에는 목표대로 영어 학원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지만, 학원강사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학원생과 학부모에게 시달리며 밤낮없이 일하다 보니 미래가 불안한 강사의 삶을 체감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정된 삶을 꿈꾸게 되었고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게 되었다.

무스펙 영문과 졸업생의 공공기관 취업 준비는 막막한 일이었다. 자격증, 공공기관 인턴 경험 등을 가진 지원자에 비해 스스로가 턱없이 무능력하게 느껴졌고 자책감마저 들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 입사 가산점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인턴 경험 등의 스펙을 개발하려 했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먼저 적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찾는 것이 최우선이라 판단했다. 진로를 고민하던 중 학생들을 상담하고 가르쳤던 일이 인적자원 개발 분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HRD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관심이 생겼다. 지난 채용공고를 찾아 보니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펙을 평가하지 않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직무능력 평가만으로 직원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무스펙

취업준비생에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직무능력 평가를 성실히 준비하고자 하는 열정과, 이를 통해 공단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본격적인 입사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2. NCS 분석을 통해 이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합격

한국산업인력공단 채용공고가 발표되기 전,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자기소개서 제출자는 모두 필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자기소개서 제출에 앞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자료 검색 중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정의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가 표준화한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열 개의 ‘직업기초능력’과 지원하는 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을 시험을 통해 평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격적인 필기시험 준비를 위해 일반행정 분야 NCS 기출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필기시험에서 평가하는 NCS의 요소를 분석해 보았는데, 먼저 ‘지식’은 ‘회사 운영을 위한 내부규정 및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술’은 ‘주어진 자료와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태도’는 ‘예비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직업윤리’를 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시험 준비의 방향성을 설정했다. 필기시험의 특성상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자료 분석 위주의 문제집 풀이를 우선시하였으나, 곧 점수가 오르지 않는 한계에 부딪혔다. 공공기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만 풀다 보니 학습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최종 합격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넓힐 필요성을 느꼈다.

지식을 넓힐 방법을 고민하던 중 채용공고에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발견하게 되었다. 직무기술서에 인사, 총무, 계약 등 다양한 규정이 ‘필요지식’이라 명시되어 있었기에 먼저 공공기관 운영의 기반이 되는 규정을 학습하였다. 규정의 내용만 보서는 실제 직무에 적용이 어려워 온라인에 공개된 규정 해설집을 자주 읽어보았다. 해설집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며 규정이 실제 직무에 적용되는 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었다. 학습한 규정이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진 않았지만, 실제 시험에서 회사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접했을 때 더 잘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회사의 핵심사업을 이해하기 위해 연간 경영계획을 틈틈이 읽어보았는데, 회사 사업 관련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되돌아보면 회사 운영과 관련된 지식을 넓힌 것이 필기시험 합격에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면접시험은 준비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필기시험 준비 때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직무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면접시험 준비도 필기시험 준비의 연장선이라 생각했다. 먼저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술 및 태도에 그동안 학습한 회사 관련 지식과 그동안의 경험을 적용해 보았다. 지식적인 부분은 '회사 핵심사업과 규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어려운 환경 극복'과 '예상치 못한 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답변을 준비하였다. 면접시험은 면접관과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태도적 측면도 중요한 평가 요소라 생각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업윤리가 태도 평가의 핵심이라 생각하여 직업윤리를 주제로 하는 다양한 글을 읽어보았다. 또한, 직업윤리와 관련된 구체적 상황을 제시하는 질문을 대비하여 「청탁금지법」과 공단 내부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을 꼼꼼히 읽어보았다. 실제로 면접에서 직업윤리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학습했던 규정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례를 언급하며 당황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다. 지식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준비했던 범위에서 질문을 받아 적절하게 대답한 결과, 면접시험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NCS를 기반으로 학습의 방향성을 설정한 것이 시험 준비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일반행정 직무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를 분석하며 성실히 학습한 결과 시험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최종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3. 입사 후의 삶과 공공기관 취업준비생을 위한 조언

입사 후 현재까지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자격시험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자격증과 관련된 다양한 직무 분야를 접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지는 것을 체감한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는 수험자를 지원하는 일은 정말 보람차

게 느껴진다. 스스로를 무능력한 취업준비생이라 자책하던 시기를 지나 원하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현직자의 입장에서 취업준비생을 바라보면 가끔 안타까울 때가 있다. 많은 취업준비생이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시험 대비를 위한 피상적인 스펙에 집착하고, NCS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NCS 시험을 준비한다. 스펙이 공공기관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스펙은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시험 대비가 목적이 아닌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정말 공공기관 입사를 원한다면 직무능력 평가의 근본적 의도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지원하려는 회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집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직무능력 평가의 의도에 어긋나는 방식인 것 같다. 이는 면접시험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무작정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외우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이는 미래에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다.

최근에 같은 부서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했던 학생에게 취업상담을 해준 적이 있다. 그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필기시험 준비의 방향성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문제집은 꾸준히 풀되, 직무기술서에 나오는 규정을 꼼꼼히 학습하고 회사 경영계획 등 사업에 대한 많은 자료를 읽어보라고 조언해주었다. 최근 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실제로 필기시험에 규정을 실무에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회사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넓힌 것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합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했다. 나의 조언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현재는 HRD 전문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사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다양한 HRD 이론을 학습하며 HRD 전문가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큰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지금은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청년취업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 ‘해외취업지원’ 등의 사업에도 참여하고 싶다. 청년실업 문제에 부딪혀 방황하고 고통받는 청년들을 보면 안쓰럽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공공기관 취업 전 청년실업 문제를 체감하며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게 더 관심이 간다. 체험형 인턴 학생에게 취업 상담을 해주며 느꼈던 열정과 뿌듯함을 잊지 않고, 미래에는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는 HRD 전문가가 되고 싶다.

경단녀, 워킹맘의 꿈을 이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



2020년 6월의 어느 아침, 오랜만에 찾은 공원 산책로의 큰 나무들을 바라보며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떨어지는 마음으로 결과를 확인한 순간, 핑크빛 화면과 함께 하늘로 날아갈듯 두근거리던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도 상반기 신입직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30대 후반의 세 아이를 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기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섯 번을 지원하였고 서류탈락, 필기탈락, 면접 탈락 골고루 경험하며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각오로 부족한 점을 조금씩 채워가며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토익성적 등 아무런 준비 없이 괜히 한 번 지원해보고 광탈을 하고 나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공공기관에 들어가겠어.”하며 빠른 포기과 함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생계형으로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바빠서 더 관심을 두지는 못했습니다. 2018년, 둘째 아이가 몸이 약해서 수술을 받아야 했던 상황과 셋째 아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더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없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용 소식을 접하게 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았습니다. 예전과는 확 달라진 서류전형에서 그래도 기재할 수 있는 10년

간의 직무 경험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 후 일주일간 틈틈이 필기시험을 준비하였고 컷트라인으로 운 좋게 합격하게 되어 기뻐지만, 면접전형을 잘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퇴사 후 둘째 아이가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아이를 간호하며 최종 불합격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이 합격하는 게 정당하고 난 그러지 못했으니 불합격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스스로가 못내 아쉬웠습니다.

‘인성 면접에서 떨어지다니 인성 좋다는 소리는 그래도 꽤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내 인성으로는 부족한가 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인성부터 열심히 노력하자.’ 결심했습니다.

아이가 퇴원하자마자 직업교육 5개를 수강했고 컴활1급 자격증 시험에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온라인 학원으로 NCS강좌를 수강했고 수험서도 여러 권 사서 보았습니다. 타 기업에도 계속 지원해서 실전 필기시험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육아와 살림도 병행해야 했기에 개인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없어서 주로 아이들이 자는 밤~새벽 시간과 아이 낮잠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임신 증상으로 수시로 졸음이 밀려와 나 자신과 싸우는 시간이었고 번번이 나에게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 캠을 구입하여 틈틈이 찍어보았고 거울을 볼 때마다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 미소 지으며 스스로를 응원했습니다. 또 나의 강점을 파악하기 위해 MBTI부터 사주풀이까지 여러 방법을 총동원해서 나 자신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펜을 쥐고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튜브 면접강의를 청취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문화강좌의 단기 면접강의를 수강하기도 했습니다. 임신 말기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쉽게 지쳤으며 계속 잠이 오는 스스로가 밉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NCS 필기시험은 제게는 공부한 만큼 정직하게 성적이 오르는 유형의 시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공부하기 전후의 성적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미련으로 실전에서 포기해야 할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고, 아쉽게도 몇 문제 차이의 필기탈락을 반복하며 날로 피폐

해져 갔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계속 직면해야 하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겸손한 자세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노력으로 채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한 달 뒤부터 컴퓨터활용능력 실기시험을 보러 다니면서 마음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장장 8개월 만에 컴활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해보자!”하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 상반기, 목표했던 회사는 아니었지만 타공기업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직을 향한 마음을 접을 수가 없었고 1년간 직장생활과 세 아이의 육아를 병행하면서 직업교육을 새로 수강하는 등 계속 틈틈이 노력하며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도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었기 때문에 제 많은 나이가 문제 되지 않았고, 자녀가 많다고, 아이가 어리다고, 똥똥한 아줌마라고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마침 운도 따라주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실하게 노력을 했더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다면 운도 함께 따라주는 그때, 꼭 성공할 것입니다.

20대의 아가씨 때부터 계속 도전을 해왔다면 좀 더 빨리 입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취업 준비에 대한 간절함이나 진심이 없었습니다. 힘든 취업 준비보다 당장 친구들과 만나 카페에서 수다 떨며 노는 게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늘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했고, 아이가 입원할 만큼 아프기라도 하면 퇴사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애 엄마들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자책하기도 하고 일을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30대 후반에 애 셋 딸린 뚱뚱한 아줌마가, 그것도 경력단절이었던 사람이 원하는 직장으로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블라인드 채용이기에 가능했고, 블라인드 채용이기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표한 기업에 입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여 서류 가산점 1점이라도 더 만들고, NCS 문제 한 문제라도 더 맞히고, 기업을 분석하며 내가 그 기업에 맞는 인재가 되도록 끝없이 연습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3년 동안 취업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취업을 준비하기 전의 나와 최종합격했을 때의 나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더 발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도전과 노력, 성취의 기쁨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건실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의 고통 속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0여 년간 간호사로 대학병원이 아닌 작은 병원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보람과 배움, 성취, 직업적 가치관들을 존중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스펙도 아니었고 어찌 생각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조각경력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하는 동안 나만의 가치 있는 직무 경험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에 더욱 좋았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었다면 일찍이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업주부의 삶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제 적성에는 잘 맞지 않아서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만끽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때가 되었을 때, 꼭 너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취업, 남이 아닌 나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 배○○



“여자 신입 마지노선은 29세 정도 아닌가요?”

불안한 마음에 올린 고민상담 방에 올라왔던 댓글입니다. 이미 30대인데, 여자인데, 불가능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대를 허투루 보내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언론사에 취업하기를 꿈꾸기 시작하면서 매일 글을 쓰고, 신문을 정리하고, 준비생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바쁘게 보냈습니다. 입사지원서도 100여 개를 넘게 냈습니다. 덕분에 언론사 2곳에서 인턴기자로 근무했고, 아나운서라는 타이틀을 달고 4년 가까이 시간을 보냈으며, 전문 프레젠테터로 활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회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저는 다시 5년 만에 ‘취업준비생’이 되어있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소위 취업에 필요하다는 자격증들을 따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을 따라하려니 그만큼 잘하기도 어려웠고, 의욕도 잃어갔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허무함이 몰려 왔습니다. 내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의심하기도 하고, SNS에 올라오는 주변의 행복해 보이는 일상을 보면서 질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어두운 고민들을 풀어놓자, 그는 공공기관 NCS 전형에 대해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입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친구는 저에게 NCS 전형에서는 나이, 성별, 출신을 넘어선 그 사람 본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의기소침해할 필요 없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연의 나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면 된다는 말이 어둠 속의 한줄기 희망이었습니다. 그 동아줄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언론진흥재단과의 첫 만남, 그리고 첫인상

NCS 전형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언론진흥재단의 공고를 처음 봤을 때 “어라? 진짜 조금 다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에 타 기업들의 경우 자기소개서를 작성 할 때는 사회적 위치나 관계, 배경, 나이, 외모에 어느 정도 의존해서 저를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고에서는 모든 사회적 조건들을 배제한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내가 할 직무가 어떤 것이고,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고민했습니다. 또 그 직무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소위 스펙을 떠나, 회사와 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 연결고리를 두텁게 다지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을 지원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나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이었습니다. 서류를 접수 시 학벌이나 출신지역, 성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서류에서 지워야하는 부분들도 검토하고, 세심하게 연관된 직무경험 서류를 챙겼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수료한 여부와 교육 내용을 자세하게 쓰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단어를 나열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문항 하나씩을 넘어 채용서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삶의 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장면을 그려내자는 마음으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더 들 수도 있는 작업이지만 그만큼 진지하게 스스로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후기를 쓰면서도 그 시간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회사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하나의 회사에 그렇게 공들이는 것이 가능한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수많은 공수표를 던지는 것보다 몇 개의 강력한 유효 투를 던지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자기소개서와 미리 준비한 서류들은 언론진흥재단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저에게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 필기시험은 평소 습관과 치밀한 전략으로

서류를 합격한 후에는 필기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는 평소 신문을 읽는 것을 좋아하던 편이라 시사상식이나 논술은 비교적 쉽게 정리했습니다. 다만 NCS는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서점에서 NCS 모듈형 문제집을 사와서 먼저 제가 취약한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특히 수리영역은 까먹었던 기본적인 공식들을 찾아보면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서류 합격발표로부터 필기시험까지의 기간은 길지 않았기에, 저의 전략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가자’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잘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고도 빠르게 풀고, 모르는 문제 중에서도 시간을 쏟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시간을 쏟아도 풀 수 없는 문제로 나눠서 저만의 순서대로 풀어 나갔습니다. 저만의 기준을 정확히 세워놨기에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긴장하지 않고 풀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필기시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사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필기점수와 응시생들의 평균점수, 그리고 커트라인 점수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시험봤던 사기업이나 언론사들에서는 받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응시생들이 궁금해 할 부분을 긁어주는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한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위 요즘 표현으로는 ‘사이다’를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를 ‘을’로 느낄 수 있는 취업준비생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도 보였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배려받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점수결과였는데, 여태껏 다른 기업들 시험에서는 떨어지든, 붙든 깜깜이 점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현실을 덕분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 회사와 나의 연결고리를 다지다, 면접전형

면접을 준비하면서는 채용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설명과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재단 그리고 저를 연결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서 충분히 고민을 한 후에는 주변에 지인들에게 설명을 해보면서, 얼마나 제가 다져낸 연결고리가 탄탄하게 느껴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자 저 스스로도 저에게 설득되어 입사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서도 저를 꾸며내기 보다는 정말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면접장에서도 제 이름 석자조차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히 저를 과장되게 표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묻는 질문에는 진솔하고 차분하게 제가 생각하는 바를 풀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기억이 나는 질문은 “왜 언론진흥재단이 당신을 뽑아야 하는지 5가지 이유를 말하라”였습니다. 화려하게 답변을 하고자 했다면, 5가지를 모두 말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치면서 제가 언론진흥재단과 저 사이에 만들어낸 연결고리는 여느 때보다 튼튼해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왜 내가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어떤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지, 평소 쌓아뒀던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기분 좋은 바람이 코를 간질였습니다.

🔍 최종합격 소식과 소고(小考)

최종합격 소식을 받았던 당시, 저는 남들이 딴 자격증을 따려는 대신 제가 스스로에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콘텐츠 제작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최종합격을 하여 무척이나 기뻐했지만, 합격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빈 곳을 채워 나갈 동력을 얻었던 채용이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채용이라는 틀을 떠나 성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다보면 어두운 밤, 길을 잃었다는 그 공허한 감정으로 인해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쉽게 됩니다. 마음은 급해지고, 남들이 하는 자격증은 다 따려고 아등바등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앞이 안 보이니 남들 하는 대로’ 라는 생각에서, 작은 선택이라도 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전환한다면 적성, 직무, 취업에 대한 해답도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문구로 끝을 맺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나무(전형) 대신에 숲(NCS)을 보자

한국수자원공사 | 이○○



🔍 “NCS가 뭐길래?”

“왜 NCS를 공부해야 하는 걸까?” 취업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푸념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취업준비생 이전에 도전했던 전문직 준비 과정에서는 명확한 목표와 방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통해 얻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활용할 수 있는 공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CS 공부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조차 ‘막막한’ 과정이었습니다.

취업 시장에 처음 발을 들였던 2019년은 끝없는 터널에 놓인 한 해였습니다. 다른 취업준비생보다 실무 경험이 다양하지 않았고, 스펙이 두드러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랜 시간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스스로 되묻곤 했습니다. 정말 취업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경쟁력’ 없는 흔한 취업준비생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흔한 취업준비생은 직무능력 중심의 NCS 채용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막막함’을 해소했습니다. 또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인 블라인드 중심의 NCS에서 ‘경쟁력’이란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그 자체임을 깨닫고, 꿈꿔오던 공공기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돌아보면서, NCS를 준비하며 ‘막막함’과 ‘경쟁력’에 대해

서 고민하는 많은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회사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뚜렷한 방향과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시점에 저는 K-water NCS 채용 설명회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면접까지의 단계에서 진정성 있게 회사의 관점에서 고민해 본 적 없는 저에게 가장 와닿는 한 마디였습니다. 어쩌면 대다수 취업준비생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전형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저 또한 “내가 어떤 걸 더 준비해야 다른 사람보다 돋보일 수 있을까?”와 같이 어필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증과 높은 어학성적이 남들과 다른 ‘경쟁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높은 스펙이 회사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는 길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NCS 채용 설명회를 통해 얻은 변화 중 하나는 바로 ‘회사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자세였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원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회사의 관점에서 채용 프로세스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NCS(국가직무능력표준)가 ‘막막함’을 해소해줄 열쇠이자, ‘경쟁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블라인드 기반의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인 KSA를 표준화하여, 기업이 어떤 능력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 지원자가 공부한 지식과 쌓아온 경험, 직무를 수행하는 태도를 직무능력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회사에 적합한 인재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원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경험, 태도를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과 연관 지어 ‘경쟁력’으로 어필하는 것입니다.

K-water는 채용 설명회부터 채용 과정에서 취업준비생의 ‘막막함’을 해소해주는 열쇠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자격증은 배제하고 전형별로 평가하는 직무능력을 명확하게 제시해주었습니다. 덕분에 K-water의 입사를 준비하면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경험을 쌓고,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달라진

점을 채용 프로세스에 맞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먼저 기업분석을 꼼꼼하게 진행했습니다. 이전에는 기업의 비전과 인재상, 직무기술서 등에만 초점을 맞추곤 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전형에 통과하기 위한 기업 파악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기업분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매출을 내고 있는지, 주요 사업은 무엇인지, 현안은 어떤 것인지에 관한 내용으로부터 수행할 직무를 가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K-water는 매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주요 사업과 계획, 재무 상태 등을 공시하고 있었기에 이를 중점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나만의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면밀한 기업분석을 통해 파악한 정보는 자기소개서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간결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K-water의 사업과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NCS 홈페이지의 직업기초능력을 매칭시켜 직관적이면서 구체적인 경험 답변을 서술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후 면접을 준비하는 중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관의 관점에서 질문 내용을 미리 생각하며, NCS 평가 요소에 부합하는지 오랜 시간 검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기전형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서두에 밝혔던, 그리고 오랜 고민이었던 필기 공부에 대한 나름의 답을 구했습니다. 필기시험 중 전공시험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식이 충분한지를 파악하는 절차이며, 그리고 NCS 시험은 주어진 시간에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원자에게 자원관리능력은 필수적입니다. NCS 필기시험은 큰 틀에서 지원자의 자원관리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주어진 짧은 시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본인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한 문제마다 100% 확신을 가지는 방식보다는, 선택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다음 문제를 푸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한정된 시간 동안 가능한 많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면서, 합리적인 판단하에 결단을 내리는 연습을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취업 후에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완벽한 결과물을 한 번에 만들기보다는,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초안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 및 개선하는 태도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다음 두 가지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NCS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경험을 단순하게 나열하고 자랑하기에 바빴던 과거와 달리, 면접관의 관점과 NCS 기준에서 고민했습니다. 면접관은 제출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파악합니다. 또 면접관이 면접 과정에서 파악한 내용이 NCS 기준에 맞춰 평가합니다. 따라서 NCS의 평가 요소를 중점으로 자기소개서를 숙지하고 추가 질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둘째, 참신함보다는 논리적인 설명에 집중했습니다. 면접관에게 얼마나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인지 어필했던 과거와 달리, 나만의 경험과 쌓아온 지식을 논리적으로 직무능력에 맞춰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NCS를 바탕으로 자기소개서를 숙지한 것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면접 준비는 본인만의 화법과 습관을 개선하는 과정이었기에 많은 시간을 공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공들인 만큼 자신감을 키웠고 최종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긴 글을 마무리하면서, 먼저 NCS를 통해 희망하는 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많은 취업준비생이 NCS를 준비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을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I

청년인턴

- 1 5개월의 기적, 청년인턴에서 주임으로
- 2 서민금융진흥원의 1기 인턴, 그중 첫 번째 입사자가 되다
- 3 청년인턴, “희망고문” 아닌 “희망”이다
- 4 청년인턴, 고민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 5 청년인턴제도, 제 취업 성공경험의 기반입니다
- 6 JOB을 잡는 선순환제도 ‘청년인턴’

5개월의 기적, 청년인턴에서 주임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서○○



🔍 기적의 열쇠, 청년인턴

공공기관 채용 관련 사이트에서 2020년 하반기 인턴 모집 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처음 접하였습니다. 당시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문제 풀이로 해결되는 필기전형과 달리 서류전형은 직무 경험 부족이, 면접전형은 조직 이해 부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수의 공공기관 서류전형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요구했고, 저의 자기소개서는 해당 내용이 부실하였습니다. 면접 전형에서는 회사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요구했으며, 외부의 시각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인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에서 청년인턴 경험을 우대하고 있고, 저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공공기관 채용 사이트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 공고를 보았습니다. 당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하여,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 경험을 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알지 못했던 공공기관에서 5개월의 청년인턴 경험을 쌓고, 해당 기간에 최 종합격하여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한 두 가지 ‘기적의 열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서류전형의 열쇠, 직무 경험

청년인턴 근무 3개월 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규직원 채용공고를 보고 서류전형에 도전하였습니다. 서류전형의 1번 항목은 ‘지원한 우리 원 직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기술하시고, 해당 경험이 우리 원 지원동기에 영향을 준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였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를 직무 경험과 연결 짓기가 어려워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턴을 하며, 관련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작성하였습니다.

청년인턴 당시 제가 담당했던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동영상 제작을 하며, 짧은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선순위 활용과 동료의 도움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직무 수행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청년 인턴으로 근무하기 전 어려움을 겪던 ‘직무기술서’ 작성도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업무 내용 및 성과에 대하여 개조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던, 직무 동기와 직무기술서를 수월하게 작성하고 나니, 서류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면접전형의 열쇠, 조직 이해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어려움을 겪던 면접전형을 마주하였습니다. 몇 차례 최종면접에서 회사 관련 질문을 받을 때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 조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 면접의 첫 번째 질문은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하며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준비한 답변으로 원하는 대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인턴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인턴을 하며, 직원들의 도움으로 조직과 조직 내의 사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PT 면접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에서 진행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었습니다. MZ세대가 조직에 입사하여 세대 갈등 발생 가능성이 커졌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방안으로 '리버스 멘토링'을 제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에서 실시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접목하기를 제안하였습니다. 인턴을 하며 인턴 멘토링 프로그램을 경험하였고, 신입사원을 위해 진행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면접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답한 결과, 2020년 하반기 신규직원 합격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5개월 동안의 청년인턴 경험이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해결할 두 가지 열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5개월의 기적(Before)

단 5개월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청년인턴을 경험하기 전까지 취업준비생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기 전형에 매진하여, 필기전형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적이 많았습니다. 운 좋게 서류를 통과한 곳이면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여 쓰라린 경험을 몇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서류전형에서 직무기술서와 자기소개서에서 직무 경험을 요구했지만, 경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는 기관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지만 잘 알지 못해 답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청년인턴을 도전하며, 두 가지를 해결함으로써 취업

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5개월의 기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1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실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청년인턴의 기회로 짧은 시간에 부족한 점을 채워 마침내 ‘합격’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5개월의 기적(After)

현재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주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인턴 멘토링 프로그램의 멘토가 되어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두 명의 청년인턴과 함께 근무하였고, 그중 한 청년인턴은 현재 저의 후배가 되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배가 청년인턴을 할 당시, 저와 멘토링을 하며 저의 경험을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후배의 어려움 또한, 저와 비슷했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 중에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청년인턴’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청년인턴을 통해 직무 경험을 쌓고 조직이해를 한다면, 서류와 면접전형에서 큰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많은 공공기관이 그렇듯 청년인턴 경험이 있으면,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저는 청년인턴이 단순히 가산점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열쇠를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열쇠를 찾을 때, 취업이라는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1기 인턴, 그중 첫 번째 입사자가 되다

서민금융진흥원 | 신○○



안녕하십니까?

서민금융진흥원 1기 체험형 청년인턴을 마치고,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정규직으로 입사한 신○○ 대리입니다. 우리 기관 인턴 1기 중에서 첫 번째 입사자가 되어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아무런 경력이 없던 제가 능력 있는 동기들 사이에서 당당히 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청년인턴 경험’ 덕분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인턴 활동 중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금융기획부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1. 나이 많은 인문대 졸업생

‘딱딱함’.

오래 준비했던 고시를 그만두고 취업을 하기로 결심하였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딱딱함’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고시를 준비하면서 나이는 이미 20대 끝자락에 서 있었고, 인문대를 졸업하였기 때문에 전공을 보는 일반 사기업 회계 팀은 지원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제 관심 분야는 경영학이고 공부해온 것도 경영학이었지만 단순히 전공이 다르

다는 이유로 원하는 분야에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를 절망에 빠트렸습니다.

2. 서민금융진흥원 1기 청년인턴에 합격하다

막막함이 앞서던 차에, 블라인드로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추구하고, 향후 입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기업 청년인턴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채용과정은 나이, 학과 등 개인 정보를 배제하고 직무 관련 자격증과 구체적인 경험만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이 많은 인문대 졸업생'이라는 편견 없이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전문성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서민금융진흥원 1기 청년인턴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3. 첫 사회생활, 금융기획부에 발령받다

저는 희망부서였던 금융기획부에 발령받아 대학생, 청년의 자금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햇살론유스' 금융상품 관련 업무를 보조하였습니다.

햇살론유스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내가 상품에 대해 잘못 이해한다면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상품을 완벽히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햇살론유스를 기획한 의도, 내부자료, 실무 매뉴얼과 외부 홈페이지 설명을 정독했고, 직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또한, 모르는 부분은 선배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햇살론유스 상품의 전문가가 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햇살론유스 홈페이지 민원 응대, 전산테스트 참여, 홍보 포스터 제작 등을 담당하며 실제 면접에서 직무적합성과 전문성을 어필할 만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상품을 담당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햇살론유스가 완전 비대면으로 대출이 가능해져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는 고객 감사 후기를 보았을 때입니다.

햇살론유스는 기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받는 상품이었지만, 코로나19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앱을 통해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환되었습니

다. 해당 고객은 기존에는 센터와의 거리가 멀어 방문이 어려워 신청을 못 하고 있었는데, 비대면 전환으로 인해 햇살론유스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햇살론유스 비대면 전환 테스트에 참여하며 고객 관점에서 어려운 부분을 찾아 개선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제 노력이 조금이나마 어려운 서민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업무이기에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온 고객분들에게 거절을 안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거절 안내보다는 햇살론유스 대신 이용 가능한 맞춤형대출 서비스라든가 복지서비스를 연결해 드리려 노력했고,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객 중심 마인드와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었으며, 서민을 향한 진심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3개월간 청년인턴을 하면서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정말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턴을 하기 전에는 금융상품을 기획할 때, 단순히 지원 대상, 금리, 한도 등 상품의 자격요건만 정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세한 자격요건을 정하는 것은 물론, 재원마련 방안부터 시작하여 출시 이후에도 끊임없는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하고 수정해나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제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고, 체험형 청년인턴을 하면서 서민금융진흥원 입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4. 인턴에서 대리로

청년인턴을 마치고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갔지만, 이제는 더는 막막하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1기 청년인턴으로서 그 어느 지원자보다도 서민금융진흥원

에서의 업무를 직접 해보며 쌓은 역량이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위하여 무엇보다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던 과거와 달리, 매일 작성했던 인턴일지를 보며 경험을 정리해 나갔고, 서민금융진흥원 보도자료, 신문기사를 꾸준히 읽으며 직무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취업준비를 하면서 갑자기 금전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인턴을 하며 담당했던 햇살론유스를 통해 지원을 받았으며, 서민금융진흥원에 입사하여 받은 도움을 되돌려드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또다시 다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기다리던 올해 상반기 공개채용에 도전하여 서류-필기-1차 면접까지 통과하였고, 최종면접까지 갔지만, 안타깝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턴 전에 서류단계에서 탈락했던 것과 달리 서민금융진흥원 입사에 한층 더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하반기 공개채용에 재도전하였고, 최종면접에서 인턴을 하며 느낀 서민을 위한 진심과 업무역량, 책임감을 어필하여 최종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5. 자신감의 원천, 청년인턴

- 2020년 9월 28일 청년인턴 입사
- 2021년 9월 27일 정규직 입사

1년 만에 다시 서민금융진흥원에 입사한 저는 인턴을 했던 금융기획부로 다시 발령받았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할 때 함께 일하던 선배님들과 다시 함께 일하게 된 것이 아직은 꿈만 같습니다. ‘청년인턴’이라는 디딤돌을 바탕으로 꿈에 그리던 서민금융진흥원에 입사한 저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습득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고시에서 실패하여 취업으로 전환하였지만, 연이은 서류탈락에 자신감은 계속 떨어졌

청년인턴, “희망고문” 아닌 “희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김○○



1. “희망”과 “희망고문” 사이에서

‘청년인턴’에 관련한 인터넷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비판 뉴스들을 보곤 한다. 그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채용을 보장하지도 않으면서, 단기 일자리만 늘려 청년들에게 청년인턴으로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나는 2개의 공기업에서 인턴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실제 입사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를 통해 청년인턴의 본질은 공기업 업무·조직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여 공기업 취업 희망자들의 입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각박한 취업난으로 청년인턴 제도의 이러한 본질이 왜곡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 청년인턴 근무 기간은 입사를 향한 ‘희망을 키우는 기간’이었기 때문이다.

때로는 객장(客場)으로 밀려 들어오는 손님들에 치여 따끔한 민원 한마디에 성장의 쓴맛을 삼키기도 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며 느꼈던 보람, 그리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됐다”, “꼭 다음에 동료로 만나자”라는 선배들의 격려, 선배들의 어깨 너머로 배운 업무는 ‘공기업 취업’이라는 쉽지 않은 도전을 ‘입사’라는 해피엔딩으로 매듭지을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주어 청년인턴은 나에게 있어 ‘희망’이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기업 취준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이 수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다.



II. “체힘”이라는 양분(養分)으로 “채움”이라는 꽃을 피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체험형 인턴(18. 9~12)

1. 선배님의 어깨너머로 알게 된 ‘실무자의 눈’

공기업 입사 준비에는 자기소개서를 빼놓을 수 없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분석이 필수적인데, 현직에서 일해 본 경험이 없는 취준생의 기업·사업분석은 매우 피상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는 인턴 생활을 통해 선배님들이 업무하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관찰하며 실무자 입장에서 사업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고, 이를 통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루는 차장님께서 주거복지 팸플릿을 보여주시며 이 팸플릿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질문하셨다. 나는 답변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지만, 보족한 답을 드리진 못했다. 그러자 차장님께서 무엇이든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답을 주셨다. 또한 이 팸플릿은 수요자들이 어떤 주거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지 알려주기보다, 공급자 입장에서 어떤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셨다. 그제서야 팸플릿에 알아보기 힘들게 빼곡히 적힌 자격조건들이 눈에 보였고, 더 나은 사업을 위해서는 고객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고, 이것이 곧 ‘실무자의 눈’임을 알게 됐다.

인턴에게 많은 업무 부여를 하는 것과 그것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선배들이 하는 업무를 관찰하고, 조언을 받으며 이를 통해 얻는 통찰도 중요하다. 만약 내가 2018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턴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인터넷과 홈페이지에 국한되어 피상적인 기업분석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직·간접적인 가르침 덕분에 어떤 기업을 분석하든 간에 최대한 현직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었고, 이것은 내가 수많은 기업의 서류전형을 어렵지 않게 통과하도록 만들었을 뿐 아니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무자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일을 참 잘하는군요”, “다시 입사하면 주거복지 가르쳐줄게요”

이 말은 인턴 생활 중 선배님이 해주셨던 격려의 한마디인데, 아직까지 내 가슴 속에 남아있다. 취업 준비기간에는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향해 가는 느낌이 종종 드는데, 외로운 터널을 걸을 때 날 지지치 않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 선배님들의 격려에서 나오는 ‘동기부여’였다. 비록 립서비스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다른 곳도 아닌, 가고 싶은 회사 선배에게서 들은 24세 청년인턴에 대한 격려 한마디는 내가 26세에 ‘2020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합격자’가 될 수 있었던 큰 이유였다. 또한 NCS와 면접 준비뿐 아니라 사업이나 회사에 관한 질문에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답변을 얻었고, 이는 나의 입사 준비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III. 내실 있는 청년인턴 제도를 위한 2가지 요건- IBK기업은행 체험형 인턴(20. 7~8)

IBK기업은행 인턴은 2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취준생에게 인기가 높다. 감사하게도, 나는 이러한 IBK기업은행에서 두 번째 인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선진적인 IBK기업은행의 인턴 운용을 몸소 경험하며 내실 있는 청년인턴 제도를 위한 요건들을 알게 되었다.

첫째, 인턴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예를 들어, 보안 수준이 낮은 업무가 많거나, 낮은 업무숙련도가 필요한 곳으로 인턴을 배치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은 기업고객 비중이 전체 고객 중 약 70%를 차지한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고객 업무는 업무 난도가 높은 편이라 인턴이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행히도, 내가 배치된 지점은 개인 고객 비중이 높아 통장정리, 카드발급 및 재발급 등 인턴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있었고, 운 좋게 양질의 실무경험을 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모든 인턴이 이런 영양가 높은 인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속된 말로 ‘지사 by 지사’, 발령받은 지사의 특성에 따라 인턴이 맡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턴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을 때도 그 격차가 존재했다. 따라서, 인턴을 배치하기 전 체험형 인턴 경험자나 실무자를 상대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인턴을 배치하기 적절한 근무 장소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턴을 배치한다면 더욱 많은 취준생이 한 명이라도 더 고객을 만나고, 질 높은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3개월 이상의 인턴 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한 직장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IBK기업은행에서의 6주간의 인턴 생활은 나의 취업 준비에 있어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지만, 유일한 옥에 티는 '6주'라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인턴 기간을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①대부분의 체험형 인턴은 사회 경험이 없는 초년생이거나 대학 휴학생이라 이들에게는 복합기 사용부터 기업문화까지 모든 것이 처음이라는 점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자가 체험형 인턴을 1:1 마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턴들이 실무자를 관찰하며 배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3개월도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인턴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IV. 희망의 다리를 계속 놓기 위하여...

서두에서도 밝혔듯, '희망 고문'과 같이 청년인턴 제도를 향한 따가운 시선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청년인턴 제도에 대한 공기업의 이해도와 노하우가 쌓이며 청년인턴 운영의 질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기업 전체의 평균적인 청년인턴 운용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청년인턴 제도를 단순히 하나의 '국가정책'으로만 생각해선 안 된다. 대신,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선제 확보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선진적인 인턴 운용방식을 공유하고, 궁극적으로 청년인턴제도를 운용함으로써 함께 발전해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기업 모두가 win-win하는 청년인턴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인턴 운영 노하우 공유를 위한 'Community Day' 개최를 제안하고자 한다.

'Community Day' 운영방식은 첫째, '함께 고민하는 인턴 정책'이라는 주제로 인턴 운용 중 해결하기 어려웠던 점을 특정 기업이나 연구원에서 주제로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식 및 사례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둘째, '선진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

토지주택공사처럼 상대적으로 체험형 인턴이 최대한 실무를 접할 수 있도록 인턴에게 적합한 주거복지업무에 전체 인턴 중 80%를 배치한다거나, IBK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인턴에 대한 독자적 교육프로그램, 평가방식 등 타 공기업에 귀감이 될 만한 운용사례를 발표하는 방식을 통해 우수 기업에 상금, 인턴 운용 관련 예산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제는 공기업이 단순히 인턴을 ‘얼마나 많이 뽑는가?’에서 벗어나 ‘어떻게 인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고민함으로써 인턴제도의 질적 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심화되는 청년실업 환경을 타계하는 데 공기업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취업준비생들은 공기업 입사를 바라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들에게 청년인턴 제도는 공기업 입사라는 쉽지 않은 길에 희망의 다리를 놓아준다. 희망의 다리가 그 어떤 다리보다 튼튼하도록, 이 다리를 건널 때 공기업 입사 희망자들의 마음이 그 언제보다 든든하도록 만드는 청년인턴 제도가 되길 바라며 수기를 마친다.

청년인턴, 고민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이○○



1. 들어가며

4번의 청년인턴과 1번의 계약직,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취업준비를 하면서 어느 노래 가사처럼 ‘왜 난 안되지?’라는 말을 되묻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곳,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입사하게 되었고, 최종합격 소식을 받았던 그때의 눈물과 감사함은 평생토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막 지난, 이제 파릇한 신입 연구원에 불과하지만 여러 번의 청년인턴을 겪으며 배우고 성장했던 것을 이 글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2년간 몸담았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우고 성장했던 많은 경험이 오늘도 청년인턴으로서 사회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많은 분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소송 실무: “법무관님, 이 사건이 궁금해요!”

법률구조공단의 청년인턴의 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송무, 회계, 서무입니다. 그중 공익법무관님과 함께 파트너를 이루어 소송 실무를 진행하는 일은 공단의 업무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단은 소외계층의 법률구조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 임금청구의 소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로 2천만원을 잃은 사회초년생의 이야기입니다. 한눈에 봐도 옛된 얼굴이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눈물을 흘리며 상담받으러 온 피해자가 너무 안타깝게 느껴져, 사무실에 있는 간식이라도 건넸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구조대상자로 판단되어 법무관님께 사건이 이관되었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원고에게 큰 좌절을 준 피고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무관님과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업무에 임했습니다. 특히 민사 소송의 특성상 원고의 피해자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 내역과 이를 증빙할 서류를 요청했고 서류를 떼는 데에 어렵다면 직접 방법을 모색해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장 외에 각종 부속신청서와 서류를 법원에 즉각 제출하여 진행의 속도를 높이려 노력하였습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불가피한 쟁송에 휘말렸을 때의 참담함과 아픔은 당사자가 아니면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도 피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송 진행에 대한 문의가 오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사건은 승소했고, 후속으로 이어지는 민사집행에서도 재산 압류를 통해 피해자는 잃었던 2천만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올 때 눈물을 흘리고 들어온 피해자는 웃으며 종료서류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법무관님 덕분이라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원 팀(One team)을 이루어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것, 그리고 끊임없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궁금증을 가지며 질문했던 것이 예기치 못한 변수 없이 진행된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 회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률구조 대상자의 소송비용 유·무료의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그 밖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소송비용의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유료 대상자도 소득 기준과 소가(소송목적 값)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 처음에 업무

를 받을 때 적잖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송무 외에 청년인턴으로서 업무의 큰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회계업무인데, 매월 법원으로부터 입금된 소송비용 환급금과 지출한 소송비용, 기타 인건비 등을 상부 기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특히 소송비용 법원 환급금(이하 법원 환급금)은 1원 단위까지 입금이 되며, 시기도 제각각이라 이를 구별하여 수납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수 없이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여, 업무 지침과 매뉴얼을 공부하였습니다. 특히 소송비용의 입금과 출금, 대상자별로 구분되어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케이스가 발생한 경우는 베테랑 직원분께 질문했고, 질문했던 내용과 알게 된 내용은 따로 정리하여 후임 직원분들께 참고용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회계 관련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고, 평소 숫자에 약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회계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부딪히되, 한번 질문한 내용과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4. 서무: “이 주임의 꼼꼼함을 칭찬해!”

서무로서의 업무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작게는 사무용품을 챙기는 것부터 영수증 관리, 기관의 낡은 간판을 고치는 업무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직기관의 간판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낡고 오래되었고, 무엇보다 간판이 작아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판 제작 업체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군데에 연락하여 견적서를 받았고, 적절한 곳을 선택하기 위해 팀장님께 문의하였습니다. 허락을 받은 업체에 전화하여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입간판을 포함하여 3개의 간판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챙기는 것은

물론, 비교적 큰 금액의 지출이라 본부 재무팀에 관련 공문을 기안해 결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안 작성법에 대해 제대로 배우게 되었고, 향후 업무를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맑은 어느 토요일 오후, 간판 설치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사진을 받게 되어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간판 교체 업무는 끝이 났습니다. 방법을 몰라 허둥대며 자주 물어보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등을 꼼꼼하게 챙겨 팀장님 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원응대와 사건기록물 관리도 했습니다. 상담 전, 전화 예약을 잡아주는 일부러 방문 민원인에 대한 각종 응대, 종료 사건 기록물을 편철하여 보관하고, 보존기관이 지난 기록물을 따로 분류해 폐기하는 작업까지 여러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5. 청년인턴제도에 대한 제언: 6개월 이상, 2멘토-1멘티 제도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타 기관에서 쉽게 할 수 없었던 소송실무를 직접 겪어볼 수 있었고, 회계나 서무, 민원응대를 통해 필수 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청년인턴으로서 누군가의 업무를 도와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 제가 한 기관의 주축이 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경험은 향후 취업준비에서도 남들과 차별화된 역량임을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역량을 다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타 기관에서 3개월간의 청년인턴도 수행해보았지만, 너무 짧은 기간이라 업무를 습득하는 데에 급급했고 재직 직원들과의 업무 공유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인턴으로서 직무역량을 습득하고 이것이 향후 있을 공공기관 입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어지는 업무를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물론, 청년인턴 스스로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멘토-1멘티' 제도를 제안합니다. 제가 청년인턴으로 재직했을 때도 멘토링 제

도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청년인턴에게 업무를 가르쳐 줄 멘토 1명과 향후 청년인턴이 공공기관에 입사에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줄 1명의 멘토를 더 매칭해 업무 경험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청년인턴에게도 업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유연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출장 시 동행하며 생생한 업무현장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기회 등은 청년인턴제도가 청년취업으로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인턴에게도 값진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6. 나가며

글을 적는 내내 청년인턴으로 근무할 때 참 좋은 분들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실수를 해도 괜찮다며 격려해주신 것부터 인생에 대한 깊은 조언까지,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취업난을 이겨내고 입사를 할 수 있었으며 입사 후에도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를 이해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만약 청년인턴의 기회를 두고 고민하는 후배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보면서 사회를 경험했으면 좋겠노라며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청년인턴제도, 제 취업 성공경험의 기반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김○○



”경험들이 많으신데요? 그치만 직무를 꿰뚫는 느낌은 없네요. 그래도...참 성실하게 지내셨습니다(웃음)“

성실하였다는 평가만을 남긴 채 저의 노력으로 이뤄진 봉사활동, 교환학생 등의 대외 활동 목록은 취업 컨설팅 강사를 연신 난감하게 하였고, 직무관련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로 되돌아왔습니다. 결국 그 해 저는 공채에서 낙방했습니다. 일관된 방향성 없이 중구난방이던 ‘이력 수집활동’을 중단했고, 청년인턴제도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마사회 두 곳에서 직무역량을 쌓아 지금은 영종대교 바닷길로 출퇴근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인턴에 지원한 이유는 첫째, 나의 부족함을 내가 가진 다른 장점으로 만회할 수 있는 제도였기 때문이었고, 둘째, 기업 내 거의 모든 부서에 인턴이 배치되는 만큼 기업 개별의 특색 있는 업무환경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인턴경력 및 혼한 자격증 하나 없었음에도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앞세워 면접에 임했고 적지 않은 나이에든 인턴채용에 합격 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적극적 자세의 가치를 엄숙한 근무환경에서 배우다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영업부에서 4개월간 첫 청년인턴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영업부에서는 품질과 신용도를 갖춘 국내 기업들에 몇 백억 단위의 자금을 수혈하는 사업이 진행됐던 만큼 업무절차는 어려웠고 근무환경은 엄숙했습니다.

처음 인턴사무실에 배치된 이후로 업무에 열중하는 팀원들과 교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팀원들 사이에 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인턴생활을 어떤 경험을 쌓지 못하고 끝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부서의 신입에게 주어지는 여신업무절차서를 신입행원에게 빌려 자리로 돌아와 팀원들이 업무에 어떤 과정 중에 있는지 살폈습니다.

기업 재무팀에 자금의 상환의무를 통지하고자 우체국에 방문하여 내용증명 등기를 보내는 일을 자주 부탁받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해 업무절차서 내의 어떤 과정대로 일이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고 물어보며 업무 흐름을 맞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여신업무였지만 조금씩 따라갈 수 있었고 제게 부탁해오는 대리, 과장님들에게 절차서에 기반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들을 먼저 준비해드리니 한두 마디 말이라도 팀원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화합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로는, 팀 내 업무흐름을 파악해나가면서 140여 개가 넘는 기업체의 여신업무 관리를 위해 담당자들이 매일같이 기사·증권사 동향을 통해 재무환경을 살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였습니다. 제가 고객사 전체의 기사 및 동향 스크랩을 일일 단위 업무로 삼는다면 팀원들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매일같이 오전에 3시간씩 철강·제약·해운·건설 분야 기업들의 동향을 취합해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휴가인 날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조사하는 노력 끝에 팀원들도 보고서를 기다리며 사업체 동향을 점검하는 루틴이 생겨났고, 기업체에 대한 저의 의견이 궁금하다며 다가오는 팀원들도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S등급의 평가를 받았지만, 이는 높은 평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스스로 다가서는 자세를 보여주며 인턴으로서 팀원들과 활발히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사업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누군가 단순히 나에게 다가와주기를 바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과감히 벗어 버리고, 팀 내 다른 사람의 업무임에도 주의를 기울여 상호교류하는 기반을 갖춰주었습니다. 높은 난이도의 업무로 난관에 부딪혀도 선배들의 조언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주었고 저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인턴경험은 필기 준비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정책금융기관에서 참여한 구조조정, 투자안 선별 등의 업무는 돈을 주고도 경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경영학의 재무 및 회계 지식이 업무에 적용되는걸 보며, 경영학 필기를 준비하던 저는 난해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필기 과목이 단순히 지원자들을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실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미리 역량을 갖추는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장애물로만 여겨졌던 공기업 필기과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경영학 전공필기 및 NCS 교재를 회독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잡았고 결국 지금의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 공기업 필기전형에도 합격했습니다.



현장 업무에 대한 관심에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하다

좀 더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관심이 생기자, 한국마사회 경마교육부에서 두 번째 청년인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경마기수 육성을 위해 합숙교육 기획 및 비용 집행, 해외 초빙 마술(馬術) 강사 관리 등 여러 범주의 업무가 주어지는 부서였습니다.

기수후보생 부식비, 마필 사료비, 숙소 운영비 등 사업운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비용항목들을 엑셀 파일에 구분하고 증빙서류를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며 예산 내에서 집행되는 비용의 개념을 익혔습니다. 이는 놀랍게도 인천공항공사에서 제가 관리하는 사업들의 비용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실제 과업과 매우 유사하여 오히려 입사 후 사무실에서 실전에 빠르게 적용시켜갈 수 있는 준비경험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수 후보생들이 외국인 교수들로부터 고가의 강습을 받고 있었는데 영어로 진행되다보니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툰 실력에도 어학을 전공한 제가 중간다리 역할로 강의에 참석해 통역하는 첫날은 인고의 시간이었습니다. 경마와 마술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던 저였기에 첫 시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

서 다음 시간까지 기수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미리 파악해 영어로 바꿔두고, 유튜브를 통해 해외 마술 교관들의 수업을 시청해 훈련에 필요한 표현들을 정리해 갔습니다. 교육에 참석하는 제가 여유로워질수록 경마수업은 저와 후보생들 모두에게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정리한 교육 용어집과 표현집을 다른 후보생들과 새로 온 인턴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인쇄본으로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경마교육부 사업에 참여하며 얻은 성과에 기분 좋았지만, 제가 얻어낸 가장 큰 수확은 팀원분들이 기수후보생들과 생활하면서 쌓아간 유대와 정으로 사업운영 중에 생기는 굵은 일들을 묵묵히 수행해나가는 태도를 배운 점입니다. 밤에 당직 순번을 지내며 기숙사 전등 교체, 도어락 방전, 수도 고장 등의 민원들을 성심껏 해결해나가는 모습에서 본 애정과 책임감은 사실 지금의 제가 우리공사의 해외 현장에 파견 나간 직원들을 지원하는 업무 태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해외 현장과 시차로 인해 한 밤중에 오는 연락이 빈번한 일상에도, 일요일이 근무일인 중동의 업무환경에 맞춰 급한 업무 지원을 위해 주말에 회사 내부망에 로그인하는 그 때에도, 마사회 경마교육부에서 팀원들이 보여준 애정과 책임감을 떠올리며 묵묵히 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취업 준비의 끝, 나에게 청년인턴이란..

인턴기간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청년인턴 이전의 갈피를 못 잡고 직무 지식도 없는 취준생이 아니었습니다. 부서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팀원들과 노력 끝에 화합한 일은 저만의 '어려움을 극복해낸 경험'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의 책임감에 깊은 인상을 받아 형성된 저의 '업무성향'을 임원들 앞에 소신껏 발언해 조용히 임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지금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매일같이 대내비, 회의비 등의 부서비용 관리나, 해외로 파견나간 우리 공사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를 보내는 지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는 청년인턴의 업무경험이 현재 제가 수행하는 업무와 그 결을 나란히 하고 있음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취업에 도움 될 뿐만 아니라 입사 이후 사무실 업무도 먼저 준비해줄 수 있게 해준 청년인턴제도의 혜택을 저는 모두 경험했습니다. 저의 성공경험을 이유로 여전히 저는 주변 취준생들에게 청년인턴 지원을 권하고 있습니다.

JOB을 잡는 선순환제도 ‘청년인턴’

한국언론진흥재단 | 홍○○



🔍 “I WILL BE BACK”

작년 4월 한국언론진흥재단 인턴 마지막 출근날, 유명 영화의 주인공처럼 멋지게 하고 싶던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채 그동안 감사했다는 형식적인 인사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꼭 돌아오고 싶은 곳이었기에 계속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인턴 기간 종료일까지 이미 네 차례 낙방한 전적이 있기에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 막연한 드림컴퍼니에서 확고한 드림컴퍼니로

광고 AE를 꿈꾼 후부터 저의 취업 주 타깃은 광고대행사였습니다. 그때 알게 된 여러 기업 중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 드림컴퍼니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광고 업무를 정확히 알지도 못한 채 가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막연히 지원했던 결과는 당연했고, 현실적으로 더 지원 기회가 많은 사기업 대행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대행사 실무를 통해 연결고리 역할이 적성에 맞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와 협력업체의 갑을 관계가 명확한 업태는 동반성장을 중시하는 제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1년 5개월간의 광고대행사 경험도 쉽게 얻은 것이 아니기에, 점점

어려워지는 취업 시장을 알기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일할수록 이윤 창출보다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 공익에 기여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꼈고, 제 적성을 살리며 할 수 있는 공익적 업무가 바로 정부광고임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고유 업무이기에 입사를 목표로 하게 됐습니다.

Q 재단에 필요한 역량은 재단에서 얻는다

재단 입사 목표를 확고히 한 뒤, 어떻게 준비해나갈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답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기업 및 업무 특성을 잘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정규직 공채만 지원하기보다 인턴으로 현장에 뛰어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보고 겪는 것만큼 재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 역량을 아는 방법도 없으며, 공공기관 행정업무가 나와 정말 잘 맞는지, 분위기와 프로세스를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또한 재단을 준비하며 가장 난항이었던 것이 채용과 관련된 정보의 부재였는데, 인턴을 하면 실제 합격한 선배님들과 직접 대면해 도움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5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인턴에게 서류전형 면제와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므로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해 마침 체험형 청년인턴 모집이 있었고, 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했습니다. 서류전형에서는 직무 관련 교육사항과 경력·경험사항, 자기소개서가 중요했습니다. 면접전형에서도 직무수행능력 기반의 구조화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경험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채용될 수 있는 방식에 저 또한 적합성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인턴을 거쳐 정규직이 되었다가 다시 인턴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Q 인턴으로의 도돌이표, 전환점이 되다

인턴으로 다시 돌아간 것을 염려하는 지인도 있었지만,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직무역량은 물론 직업의식까지 갖추어 줄 수 있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로 맡은 업무는 모니터링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사소하고 별거 아닌 듯한 업무였지만, 투입된 자원과 공익적 목적에서 올바른 게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놓치지 않으려 성실히 임했습니다. 결국 오게재 및 누락 건을 발견해 세금의 낭비를 방지하며 광고의 마지막을 지키는 수문장이 됐습니다.

또한 광고 집행 전 과정에서 섬세함과 고객 응대력이 중요함을 배우고 직무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민원 전화 응대였습니다. 처음엔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듣기 힘들었는데, 관점을 전환해 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민원 전화는 ‘고객들이 먼저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의견을 반영할 수 없을지 고심했습니다. 이처럼 직무역량에 더해 진정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업무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담당 업무 외에도 전체적인 절차를 알고자 질문하고 공부했습니다. 통합지원시스템이 도입됐을 때에도 내부 직원·매체사·광고주 각 입장에서의 개선점을 고려하고, 의견을 개진했으며 소속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진심으로 임했습니다.

처음엔 1년이라는 인턴 기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기간을 다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그 안에 취업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공존했습니다. 막상 퇴사할 땐, ‘여기가 내 직장이라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실제로 경험해 본 결과 재단은 업무와 조직문화 등 나와 맞는 곳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단 사람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근하게 대해준 분들 덕분에 회사생활도 더 즐거웠고, 업무적 고충을 털 수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이곳에 오고 싶다’는 생각을 굳히게 됐습니다.



인턴 경험 덕분에 더 견고해진 맞춤형 채용 준비

인턴 종료 후, 6월에 있던 공채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셨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취업문을 열기 녹록치 않았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불안함은 더해갔습니

다. 11월 초,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를 한국언론진흥재단 채용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서류전형은 계속 통과했음에도 불안했습니다. 저에게 유리한 광고직이 아닌 일반행정 통합직 채용이었고, 코로나가 더해져 문과 지원자들이 몰릴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재단은 자기소개서를 중시하기에 각 문항에서 묻는 NCS 역량이 잘 드러나도록 고민을 기울여 충실히 작성했습니다.

정성평가가 중요하지만, 가점과 우대사항 점수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에서 인턴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를 활용했습니다. 가산점에 해당하는 사회조사분석사와 공인 영어 성적을 취득하고, NCS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문제풀이능력을 향상했습니다. 현실적인 교육비 지급 외에도 인턴에게도 미디어컨퍼런스 참여 기회가 주어졌고, 재단과 관련된 언론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재단에서의 인턴 경험은 논술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재단 논술 대비서로 통하는 월간지 『신문과 방송』은 유료 구독 혹은 SNS로도 볼 수 있지만, 인턴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매달 무료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력이 부족한 인턴에게, 특히 전자문서보다 종이책이 익숙한 저에게는 큰 도움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꾸준히 게재되는 조사 연구서도 논지를 강화시키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시험 절차는 블라인드라는 말 그대로 공정했고, 차후 역량 개선을 위한 점수 공개 등 피드백 또한 제공했습니다.

인상 깊은 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가 응시했던 몇 번의 시험동안 일관되게 타이머를 스크린에 띄워주고, 펜과 물, 작은 간식을 준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원자를 위한 배려에 좋은 인상을 받았고, 더욱 입사 의지를 다지게 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진심인 지원자 000입니다

이전과 달라진 논술 유형에 이번 시험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맘을 비우고 확인한 결과, 면접대상자라는 문구를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때, 웬지 모르게 ‘이번엔 운이 내 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적어보고, 준비한 답을 그대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되고 싶었기에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회사와 나’를 고민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중시하는 것과 역량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들을 했고 뭘 배웠는지…. 인턴 때 겪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니 아주 작은 일조차 나의 가치관이 담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완벽보다는 핵심 가치, 기준, 역량만은 꼭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했습니다. 실전처럼 크게 소리 내 말하는 연습을 했고, 휴대폰 용량이 가득 찰 정도로 녹음하고, 촬영했습니다. SNS에 업로드 된 선배들의 영상을 보며 재단 직원이 된 저의 모습을 그리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기도 했습니다. 실전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에도, 인턴으로 일했던 업무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I'M BACK”

크리스마스 이브, 그토록 바라왔던 ‘최종합격’이라는 네 글자를 보게 됐습니다. 다섯 번의 탈락 후 얻은 소중한 합격이자, 저의 진정성이 통한 순간이며,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8개월 만에 제가 일했던 광고국으로 다시 뚝뚝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무기로 갈고 닦는 것은 자기 자신

청년인턴 제도를 누구는 구색 맞추기용 정책이라고 하지만, 저에겐 누구보다 강한 무기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인턴에게 명확한 역할이 주어졌으며, 꽤나 많은 양으로 부담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일 없이 독서실처럼 출근해 공부만 하는 인턴보다 훨씬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표 기업에서 실무 경험과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함으로써 입사예의 꿈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취업 커뮤니티에는 청년인턴을 해야 할지 묻는 게시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저에게 누가 같은 질문을 한다면, 성공적인 사례의 당사자가 됐음에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으로의 선순환은 청년인턴 경험의 유무보다 그 경험을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으니까요.

다만 청년인턴 제도가 본인 적성에 적합한지, 생각했던 모습과 일치하는지를 알게 해 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해주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준생 중 뚜렷한 기업이나 직무 파악 없이 '안정적이니까, 워라밸이 좋으니까'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고 관련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며 확신을 얻거나, 재수정해 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l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side,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side.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Ⅲ

고졸 채용



- 1 모든 목표는 100M 달리가 아닌 마라톤
- 2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졸도 가능해요!
- 3 유쾌한 반란
- 4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해냈습니다
- 5 4년 전의 나에게 20살의 내가...
- 6 “취어질지언정 부러지지 않는다”

모든 목표는 100M 달리가 아닌 마라톤

한국자산관리공사 | 이○○



🔍 방향 없이 그저 달려가기는 싫었기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가 중학생 때까지 주변에게서 들은 성공의 기준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특정한 꿈 하나 없이 그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좋아하는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 분야로 취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저 ‘좋은 대학’, ‘좋은 회사’라는 타이틀만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중학교 3년 내내 진로에 대해 고민해본 적 없었는데, 그날부터 1주일이 넘도록 진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 남들 다 가는 길을 두고 왜?

머칠이 넘게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금융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만들어주신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것을 보며 호기심을 느꼈고 어머니께서 가계부를 쓰실 때면 ‘내가 쓸래!’를 그렇게나 외쳤습니다. 사회 시간에 환율에 대해 배울 때면 그 어떤 학생보다 재밌게 수업을 들으며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다른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외치는 성공의 기준이 ‘어느 회사를 갔는가?’라면 좋아하는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좋은 회사를 갖고 나중에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낮은 길이라도 꿈을 갖고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뒤따라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결정한 결론을 들고서 부모님과 선생님께 특성화고를 진학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께서는 정말 후회하지 않겠냐고 몇 번이나 되물으셨고 지금 성적만 유지해도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왜 그런 길을 택하려고 하느냐고 혼이 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선택이니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며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Q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10분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생소한 교과목을 배웠습니다. 생각만큼 금융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입학할 때와는 달리 초심을 점점 잃어갔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적이 낮은 선배가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나태해졌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친구와 실습실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던 날,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서 얼굴만 얼핏 알고 계시던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너는 꿈이 뭐니?”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명해졌습니다. 금융에 관심 있으니 잘해내겠다는 꿈은 뒤로 한 채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쨌든 취업은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달리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진 저를 보시고는 10분 정도 동안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때 초심을 다잡았습니다. 금융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꿈을 다시 한 번 잡았고 그러기 위해 금융공기업에 취업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금융경제과에 진학하고서는 구체적으로 자격 취득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 일주일에만 5개의 자격시험을 보다

금융공기업 입사를 꿈꾸며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준비를 하면서도 온갖 자격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학년이 끝나가는 겨울방학이었던 1월의 한 주에는 자격시험만 5개를 보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 화요일에는 워드프로세서 필기, 수요일에는 전산회계운용사 2급 필기, 그 주의 토요일에는 ERP회계정보관리사와 ERP인사정보관리사 2급에 응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8년 한 해에는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하나만 취득했던 제가 취업할 때에는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매일경제TEST 우수, 전산회계 1급 등 10개가 넘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 노력은 배신하지 않았다, 필기 One Shot One kill

2학년이 끝나갈 때쯤 학교에서는 공기업을 고려한다면 필기시험을 공부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자들이 탈락하는 전형이 필기 전형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떤 선배가 어디 기업 필기를 탈락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정말 공부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선배들이 필기전형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자신감을 잃었고 이 길이 맞는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학년 때 제게 상담을 해주셨던 선생님께서는 저를 볼 때마다 잘해낼 거라고, 믿는다고 늘 응원해주셨고 덕분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2월까지의 부지런히 자격시험에 응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개학이 연기되었던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NCS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만큼 풀지 않으면 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쪼개서 문제를 풀어 일주일 동안 두세 권의 NCS 문제집을 다 풀었습니다.

간절함으로 매일 공부한 덕분에 제 첫 필기시험이었던 한국자산관리공사 시험일까지 약 5개월 동안 봉투모의고사를 포함해 45권을 풀었고, 첫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 첫 필기였고 제 첫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늘 그렇듯이 또 노력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과 학교에 남아 매일 면접 연습을 했고 자기소개서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예상 질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PT면접을 대비해 매일 5개의 기사를 스크랩했고 공사홈페이지와 애뉴얼 리포트, 재무제표 등을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프린트한 애뉴얼 리포트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빈틈마다 빼곡하게 시사와 엮어 적어서 종이가 너털너털해졌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6급 금융일반 전형에 최종 합격하며 금융공기업 입사라는 꿈의 실현과 함께 금융 전문가라는 꿈에 한 발짝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Q 모든 목표는 100M 달리가 아닌 마라톤

고졸 취업을 준비하며 주변의 시선이나 학교생활로 인한 부족한 시간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잘한 선택이 꿈을 갖고 특성화고에 입학해 공부하면서 금융공기업을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 끝에 고졸 취업이라는 목표를 정한 것 자체에서 이미 충분히 큰 발걸음을 내딛으신 거예요!

모든 목표는 100M 달리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 때문에 걱정도 많겠지만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가 아니라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마라톤이니, 무너지지만 앞으로 있다면 언젠간 결승선에서 웃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각자가 목표하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나아가주세요.

저 또한 금융공기업 입사라는 목표를 이뤘으니 이제는 제가 꿈꾸는 전문가가,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달려가겠습니다. 고등학생을 비롯한 고졸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특성화고뿐만 아니라, 인문계 고졸도 가능해요!

창업진흥원 | 이○○



저는 대학교를 가지 않았고 그렇다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오지도 않은 평범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삼수를 거쳐 공공기관에 취업하기까지 총 5년이라는 압혹 같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 인문계 고졸자에 관한 취업 정보가 적어 준비 과정 중 많은 고비가 있었기에, 인문계 후배들에게 공공기관 고졸 전형 입사 방법과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의 입사 수기가 인문계 학생들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를 포함한 모든 취업준비생에게 도움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대학교가 전부인 줄 알았던 나

어렸을 때부터 “SKY 대학교를 가야 성공한다”라는 주변의 사회적 인식에 따라 대학교 네임밸류에 목숨 걸며 결국 삼수를 했습니다.

세 번째 수능 역시 원하는 대학교에 가지 못할 성적이 나왔고, 성적에 맞추어 대학교를 갈 바에는 차라리 안가겠다고 부모님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학업지원이라면 그 누구보

다 적극적이셨던 부모님이셨기에 대학교 포기를 납득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취업을 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능 공부만 했던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증과 스펙이 없었고, 특성화고와는 달리 고졸 취업에 대한 방향을 알려줄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 도입으로 지난해 대비 10% 이상 채용을 확대하여 2,200명의 고졸 채용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벌과 나이, 스펙 등을 보지 않는 공정한 채용을 하고 있기에 인문계 고졸 취업준비생인 저에게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여 공공기관 고졸 전형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취업 정보의 부재 극복 방법, 여러분들께 '알리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고졸 채용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특성화고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공공기관의 채용공고부터 모든 전형을 코치를 해주시고, 미리 취업하신 선배님들로부터 갖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인문계고 학생들에 비해 정보를 얻기에 환경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알리오'라는 정부 공시 사이트를 통해 고졸 채용정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오' 홈페이지에서는 기관별 경영 공시 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와 채용공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세 검색을 통해 고졸 채용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직접 모집기관의 사이트에 들어가 기관 소개를 탐색하며 각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저에게 적합한 기업을 선택한 후, 기관 맞춤형 인재가 되고자 관련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에 돌입했습니다.

Q 어떻게 맞춤형 인재가 될 수 있을까?

정부에서 직업 능력 개발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만들어 직업훈련을 통해 실무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자 했습니다.

직업교육 통해 사무행정의 전반적인 이론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실무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직자를 위한 정부의 훈련비 지원 덕분에 금전적인 걱정 대신 직무역량 개발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공직자로서의 실무역량을 쌓고자 했습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최한 방역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4개월 동안 환자분들의 발열 체크와 환자 응대를 수행하며 민원응대능력을 기르고자 했습니다.

그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졸인턴으로 근무하며 부서 내 업무 프로세스를 익히며 문서작성에 대한 이해력을 쌓아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인턴으로서 '청렴'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활동들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인턴 동기들과 스터디를 통해 NCS 문제풀이 및 취업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 자체적으로 취업전문 강사들을 섭외하여 서류, 필기, 면접전형에 대한 취업 성공을 위한 역량 교육을 들으며 실질적인 피드백으로 취업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Q 창업진흥원에 합격하다

경제신문을 통해 창업진흥원을 처음 접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창업기업들이 위기에 놓인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제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가 선순환을 이루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디지털 산업, 헬스케어 산업 등은 더욱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제2의 창업 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평소의 직업관이 면접장에서 솔직하게 발현되어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이곳 창업진흥원에서 창업기업 공공구매 참여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 확인 심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금 및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기업들의 판로개척에 힘쓰고 싶습니다.

 無信不立(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취업은 목표이고 그 과정은 경쟁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소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싶은지, 이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상기시키며 동기부여하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그 끝은 창대할 것입니다.

유쾌한 반란

한국조폐공사 | 허ㅇㅇ



안녕하세요?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에서 보안관리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허ㅇㅇ입니다.

고졸채용에 도전하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사회에 나온 저는 한국조폐공사 입사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었는지, 또 현재는 어떤 유쾌한 반란들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길을 걷고 계신 취업준비생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 자신을 둘러싼 '가정환경에 대한 반란'

저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4살 때부터,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시골 외할아버지 집에서, 중학생 때는 화장실과 욕실이 밖에 있는 단칸방 집에서, 고등학생 때는 1981년도에 건축된 10평 남짓 주공아파트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가정형편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래희망은 '계층 이동'이었고, 그 장래희망을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통해 이루어 보고자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저의 장래희망을 응원해 주시는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을 지원하는 삼성꿈장학재단의 멘토링 꿈 장학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 2, 3학년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고, 부족했던 교육비인 도서 구매, 시험 응시비, 교통비 등을 장학금으로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인 저희 가정을 위해 반찬을 매주 보내주신 봉사 단체 덕분에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지니며 고등학교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삼성꿈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등 많은 지원과 선생님들의 기대를 바탕으로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고졸채용에 응시가 가능했던 3학년이 되었을 때는 4개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공개채용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가 부족했던 탓에 지원했던 채용의 필기전형에서 모두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 그동안 형성된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공기관 입사의 문을 두드리니 어느 순간 필기전형을 합격하게 되는 실력을 갖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면접전형에 간다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말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적은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모습과 절실함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4개의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 현장실습을 했다는 누구나 다 경험해 봤을법한 내용으로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면접관 분들께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공부 말고 다른 분야에 열정적으로 도전해 본 경험이 없는가?"라는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만을 한 것인데 이런 질문을 받으며 불합격을 하니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이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의

시작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남들과 차별을 두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옥외광고업 사단법인 단체에서 약 9개월간의 사회경험과 공공기관을 체험해 볼 수 있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2년의 체험형 인턴 경험,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으로 만들어진 내일배움카드로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배전담당기술자양성이라는 3개월간의 직무교육까지...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대외활동 등 많은 경험들을 하며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셀 수 없는 공공기관 필기전형 낙방 그리고 2016년 한국조폐공사 고졸채용을 포함하여 4번의 공공기관 최종면접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공공기관 입사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저에게 다시 한번 한국조폐공사 입사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 한국조폐공사 고졸채용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하고 다시 도전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지원자입니다!”라며 최종면접장에서 면접관 분들에게 인사를 함과 동시에 2년 전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말씀드렸고 돌아오는 질문에는 솔직하게 답변하며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당당히 한국조폐공사 고졸채용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을 위한 '사회에 대한 반란'

저는 지금 4년 차 직장인이자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직장에서는 노동조합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한국조폐공사 최초 남녀통합당직제도를 도입한 담당자가 되었으며 각종 업무 개선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고민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멀리 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주경야독을 계속해서 실천하고 있으며 야간대학교 학사과정에서 멈추지 않고 대학원에도 도전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반란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반란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반대하여 뒤집는다는 의미인데 이 글의 제목을 유쾌

한 반란이라고 지은 이유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유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나은 사회, 미래를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유쾌한 반란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 이 반란에 동참할 수 있는 날이 얼른 다가오길 소망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해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강○○



고등학교 1학년 여름, 파스 냄새로 가득 찬 시합장 안에서 감독님께 말씀드렸다. “저 운동 그만하겠습니다.”

그렇다.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으며 춘천코리아 오픈 국제태권도대회 3등을 마지막으로 운동을 그만두고 학업으로 전향했다. 남들은 공부하고 있을 시간에 나는 트랙을 뛰고 발을 차고 있었고,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을 시간에 나는 피곤함에 찌든 몸을 이끌고 체육관으로 향했다. 그 결과 내 학업 성취도는 중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럼 나는 그 자리에서 포기했을까? 아니 더 독하고 더 악하게 공부했다. 그래서 당당히 공기업 고졸 채용에 합격했고, 지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원이 되었다. 나는 운동부 시절부터 계속해서 나에게 던진 물음표가 있다. ‘상황이 안 돼서 못한 거야?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야?’ 정답은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다.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계를 넘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글이 고졸 채용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한참이나 느렸고 부족했으며 매번 실패했던 나도 결국엔 해냈다는 걸 잊지 말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① 고등학교 성적표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운동을 그만두었을 당시 제 성적은 평균 7등급으로 공기업 지원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을 올려야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제 삶이 학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전교생 중 가장 먼저 등교해 중학교 교과 과정을 공부했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쉬는 시간마다 선생님을 찾아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학교생활 중 가장 기다려지는 점심시간에도 밥을 마시다시피 빠르게 먹은 뒤 아무도 없는 실습실에서 오전 수업 내용을 복습했습니다. 방과 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시간에는 전공 및 자격증 공부에 집중했고 그렇게 간절한 노력 끝에 전교 꼴찌에서 1등까지 올라가는 데 딱 1년이 걸렸습니다. 남들보다 2배 느린 만큼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해야 했기에 계속해서 복습하고 또 복습했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 좌절할 때도 잦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만의 공부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기업에서 성적, 자격증 등 스펙을 보지 않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내신을 꼭 챙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졸로 입사 후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 대학교로 진학하며 입사 과정에서 내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고등학교 성적을 꼭 신경을 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② 자격증은 서류 전형 통과를 위한 부가 요소이다

고등학교 입학 후 빠르면 1학년 2학기부터는 본인이 어떤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선택했으면 그 회사의 채용 공고에서 우대 자격증을 확인한 뒤 해당하는 자격증 위주로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경쟁력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자격증이 최종 합격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시작해 필기,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야 하니 자격증 외에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은 서류 전형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만 준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과 무관하게 가산점이 주어지는 자격증 1개 정도는 필수로 취득한 뒤 추가로 본인의 전공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국어 점수는 없다고 불리하진 않지만 있으면 확실히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의 개수 또한 많을수록 좋겠지만 누구는 자격증 취득에 쏟을 에너지를 NCS 준비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 전형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증이 경쟁력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서류전형 다음의 단계를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③ 독서량이 자기소개서를 대변한다

우리가 입사지원서를 작성할 때 자기소개서는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서류전형은 자격증만으로 합격할 수 없으며 자기소개서가 뒤를 탄탄하게 받쳐 줘야 합니다.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책과 신문을 많이 읽어야 하며 그 이유는 논리력과 사고력이 확장되고 어휘력이 풍부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유형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많이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처음 작성하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많이 어려워하는데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합격 자기소개서를 보고 글의 문맥을 파악한 뒤 그대로 복사하여 합격자의 스토리를 저의 스토리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한 줄도 작성하지 못했던 제가 하나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본인의 어휘력과 문장 표현력을 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수정하면 어느새 완성형 자기소개서가 되어 있을 겁니다.

④ NCS는 투자한 시간과 노력의 싸움이다

계속되는 탈락 속에 처음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마흔 번 이상 필기시험에서 탈락했던 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엔 필기시험을 넘어 최종 합격까지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NCS는 취업 준비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PSAT 유형의 문제를 많이 접하지 못한 고등학생들은 그 어려움이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NCS는 속독과 독해력이 중요한데 신문과 책을 읽는 습관이 정말 많이 도움 되었고, 비문학 문제집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신문을 읽을 때는 제목을 보지 않고 본문부터 읽은 후 본문에서 예상되는 제목을 뽑아

실제 제목과 맞춰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연습은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었고, NCS의 의사소통능력과 자료해석능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는 고졸, 대졸 구분 없이 최대한 많은 책을 풀어보고 NCS 문제집뿐만 아니라 PSAT, SKCT, GSAT, HMAT 등 대기업의 필기시험 책으로도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NCS는 모듈형, 피들형, 피셋형으로 출제 유형이 구분되는데 이는 회사별로 다르며 사전에 정보를 취득할 경우 더 순조롭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 커뮤니티와 스터디 오픈채팅방을 통해 회사별 출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얻었으며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어떤 유형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⑤ 면접장에서 자신감은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갈린다

그토록 원하던 최종 합격의 마지막 관문인 면접은 항상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긴장감 가득한 면접장 대기실 안에서 제가 했던 마인드컨트롤은 “자신감” 하나, 그 자신감은 제가 어떻게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면접전형을 위해 여러 사람에게 자기소개서를 보여주며 예상 질문을 만들고 직접 면접관이 되어 압박면접을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 본인의 시간을 소비해 저를 도와주는 만큼 기프티콘 등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말이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기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대비할 수 있었고, 이는 실제 면접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토론면접은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이라는 사이트의 기사를 보며 준비했고, 롤플레이팅 또는 PT 면접의 경우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가 지원한 직무의 정보를 얻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공시와 회사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보고 사업 및 업무 추진현황을 체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면접장에서 불안감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⑥ “Helper’s High” 나를 도울 때 행복은 배가된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응원받고 도움받았던 저는 목표했던 바를 이룬 뒤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했습니다. 제가 공기업에 최종 합격하기까지 많은 분이 도와줬

4년 전의 나에게 20살의 내가...

한국임업진흥원 | 윤○○



🔍 그리기만 좋아했던 아이

사람이 좋아 함께 놀기 좋아했던 중학생 시절의 내가 지금 20살이 갓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직장에서 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나를 상상이나 해봤을까? 주변인의 생각과 선택에 눈치를 보던 당시 나의 성향을 비추어 볼 때 상상이 안가는 일이다. 중학생인 나는 취업에는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고 그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미술부에서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할지 고민하며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 성장 후 진로 고민

하루하루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던 중 졸업 신나기만 했던 나의 일상에도 큰 고민이 생기고 말았다. 누구나 그렇듯이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하는데 공부에 대단한 재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미술이나 예술분야로 특출나게 두각을 드러내어 평생을 먹고 살 자신도 없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예고로 가야하나 꿈꿈이 생각해보다가 세 살 터울의 예고 3학년인 언니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과 단순한 재능으로 시작하기에는 큰 산이 있는 것을 목격한 뒤로 내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나의 장점이 무엇이고, 내게 주어진 재능을 어떻게 계발하고 기술들을 접목시킬지에 대

한 생각에 다다르니 남들 다 가는 인문계를 끌려가듯 진학하기보다 다른 길을 찾아보고자 마음 먹었다.

남보다 빠르지만 다른 결정, 특성화고

고3때 진학을 고민하는 것보다 3년 전에 남보다 좀 더 오래 고민하고 내 자신을 뒤돌아 본 결과 선택한 결론은 특성화고였다. 정부정책에 따라 내가 원하는 자격과 기술들을 습득하기 용이하고 진학 후에는 빠른 취업 후 안정적인 수입과 워라벨을 통해 또 다시 지속적으로 나를 계발하며 남은 인생을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그 주변 아이들보다 빠르지만 달랐던 결정은 지난 내 인생의 갈림길마다 주어진 선택지에서 가장 잘 선택한 결정이라고 감히 생각해본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고등학교 3년, 20대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사회에 진출하여 원하는 직장 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이게 얼마나 이상적인 인생인가? 이후 한국 임업진흥원에 들어와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나 같이 취업을 먼저하고 3년 뒤 학업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잘 갖추어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긴 했다. 사실 정말 알면 알수록 취업을 선택했던 과거의 나에게 표창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쥐여주고 싶은 심정이다.

나에게 특성화고란, 내 삶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져준 곳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처음 마주한 취업의 준비과정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다. 학교마다 분위기는 다양하겠지만 내가 입학했던 OO여상은 마치 교실에 '살아도 취업, 죽어도 취업'이라는 팻말을 붙여놨을 것 같이 선생도 제자도 열정에 활활 불타는 곳이었다. 중학생 때는 학업만으로도 벅차서 허덕였는데 학업 외에도 자격증, 대회, 봉사활동 등 모든 분야가 생소해서 처음에 적응하기 어려웠고 잠시 동안 후회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다. 다행히 학교에서 이러한 학생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과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내 각종 대회와 공모전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일단 눈앞에 흥미로운 게 주어지면 다 해보려는

성격 탓에 이후에는 학교에서 활동을 제공해주면 신청서부터 내고는 했다. 교과서만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어요 라는 인터뷰처럼 정말 특성화고는 의지만 있다면 학교 내에서 취업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비부터 실습까지 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시험 기간과 대회, 자격증 등이 겹칠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매년 1등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상위권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취업의 관문,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고2가 지나가면서 나 또한 여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될 거라는 심정으로 희망 직업란에 '공기업'이라는 세 글자를 새겨 넣었다. 그런데 그 세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손에 잡히지 않는 그저 막연한 꿈으로만 여겨졌다. 그래서 일단 부딪혀 보자라는 심정으로 원서를 내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들을 기반으로 분석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스펙과 자질들을 서류에 녹여내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지만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겪는 이 과정은 어려운 점도 많았다. 당시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모두가 선망하는 OOOO진흥원을 지원하여 첫 면접에서 너무 떨어버렸고 당연한 결과처럼 '불합격'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서류와 필기통과만으로 다 된 것처럼 미리 안심하고 보다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컸고 주변의 친구들이 속속 먼저 합격하고 갑자기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진 듯한 느낌도 들었지만 이대로 끝난 게 아니기에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좀 더 냉정해지기로 하였다.

🔍 목마른 자 적극적으로 우물을 파라

먼저 천천히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소서와 면접에 쓸 자료들을 구조화시켜 미리 나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의 합격요소를 물어보고 그들의 강점과 대응방식에 대한 벤치마킹을 선생님의 도움 아래 중점적으로 해나갔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였던가. 그렇게 노력한 결과 면접의 경험부족과 자신감 결여를 극복하기 위해 목소리 보정 등을 모의 면접을 통해 고쳐 나갔고, 마침내 2020년 상반기 한국임업진흥원의 공채를 맞이하게 되었다.

🔍 노력하고 버티는 자, 원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라는 진리

주변 친구들과 함께 준비를 하고 서로 독려하며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을 통과하였고 마침내 면접전형 하나만 남게 되었다. 상경하기 하루 전날밤 내 자소서를 한번 더 되짚어 보고 지원동기와 공공기관 청렴의 가치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조목조목 반문하면서 생각을 정리하였다. 합격 당일 수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오후 5시에 무작정 미용실에 찾아가 파마를 했다. 파마는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합격소식이 기뻐 그 머리카락마저 매우 사랑스러웠다. 아직도 그때 태워먹은 머리카락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행복하다.

🔍 4년 전의 나에게 20살의 내가

나는 현재 엄연한 한국임업진흥원 안전관리실의 한 직원으로서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 하루하루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다. 아직 모든 일이 서툴지만 팀장님의 지시사항과 여러 선배들의 가르침 아래 서서히 사회라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고 있다. 4년 전의 갈 길을 고민하고 노력했던 나에게 20살의 나 역시도 나답게 항상 그랬듯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나를 지속적으로 가꾸고 계발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해주고 싶다. 노력하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데 입사수기를 쓰면서 지난 날 나의 노력과 선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역시 원하는 일과 회사를 쟁취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이 부러지지 않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강○○



저는 금융 전문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공기업 취업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금융에 특화된 교육을 받는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금융 공기업 입사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금융 공기업을 꿈꾸고 있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용공고를 접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사실 제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높은 벽을 넘어야 입사할 수 있다 생각되는 곳이었습니다. 취업준비생으로서 공기업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있긴 했지만 그만큼 입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이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걱정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캠프코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1학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꿈이었기에, ‘고민보다 GO’를 택했습니다. 문항이 비교적 어렵다고 느껴졌으나 최대한 저의 경험을 잘 녹여내어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한 이후 필기전형을 통과하기 위해 곧바로 NCS 교재를 공부하였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금융경제상식 시험으로 필기를 진행하였고 해서 저도 그에 맞춰 공부해왔는데, 공고를 확인하였을 때 NCS를 도입한다는 것을 보고 적잖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을 목표로 풀었던 많은 NCS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는 실전이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임하였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학년 때부터 바라왔던 캠프코로부터 얻은 기회였기 때문에, 머릿속에 필기 전형에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캠프코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필기시험에 NCS를 도

입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NCS 교재는 물론이고 풀었던 교재를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서류 제출부터 필기 전날까지의 2주간의 준비 기간 동안 약 10권의 책과 모의고사를 학습하였습니다. 필기 경쟁형 채용이기도 했고, 합격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필기 공부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필기 당일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였습니다. 10문제가 출제되는 공사부분도 공부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심화적인 부분을 질문하여서 머리를 싸매며 풀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난 후 시계를 보니 20분 정도가 남아서 뭔가 잘못 풀었나 싶기도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온 건 맞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필기 합격창을 확인한 후 정말 뿔 듯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감이 엄습해오기도 하였습니다. 높은 필기 경쟁에서 통과를 하여 면접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가 저에게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번뿐인 기회라고 생각하니 더욱 불안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접 일정의 연기 가능성이 있었지만 스스로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위해 바로 다음 주부터 면접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꾸준히 말하는 연습을 하며 순발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의 연습으로는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느꼈습니다. 캠프 입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시간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교를 한 후 집에서는 ‘랜덤박스’라는 방법을 사용해 연습하였습니다. 수십 개의 예상 질문들을 인쇄하고 상자 안에 넣어 손으로 질문 하나를 뽑고, 그에 바로 대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접 일정이 한 달 가까이 연기되며 멘탈이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연습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중심을 잡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면접 준비와 더불어 마인드세팅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전형을 준비하는 내내 매순간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캠프인이 된 미래를 그려보며 입사 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생각으로 임하였습니다.

1차 면접은 지역본부에서 이뤄졌고, 처음으로 화상면접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몰리다다. 생각보다 비대면 방식에 대한 어려움은 없었으나 짧은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준비했던 것들을 다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최종면접 준비 시기와 중간고사와 수행평가가 몰리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1순위는 캠프 입사였지만 고등학생으로서, 또 후진학을 생각한다면 내신 공부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도를 생각해 면접 준비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어느 것에 성공할 때 더 기쁨이 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답은 당연히 캠프 입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신 공부에도 소홀해지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간을 잘 분배하여 수행평가와 중간고사 준비를 하며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차 면접과 달리 최종 면접은 단 하나의 면접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1차 면접이 역량 위주라면 2차 면접은 인성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의 열정과 간절함이 면접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이 고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려면 우선 나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영상을 찍고 녹음을 하며 좋은 인상을 다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면접 연습의 기본은 녹음과 녹화입니다. 스스로가 답변하는 모습을 녹음 및 녹화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이를 재생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첫인상이 차갑다는 평을 듣기도 해서, 밝고 따뜻한 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개개인마다 고쳐야 하는 약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인상이 무서워 보이는 사람, 순발력이 부족해 답변할 때마다 헤매는 사람, 지나치게 긴장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점과 단점은 노력을 거쳐 99% 고쳐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스스로가 가진 취약한 부분에 대해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 생각하고 변화하기 위해 점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스스로에게

고쳐야 한다는 과한 압박을 준다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단점을 단계적으로 고치려 하였습니다.

최종 면접까지 마치고 난 후, 1차 면접과 비슷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습했던 부분을 놓치고, 실수를 한 것이 자꾸 떠올라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보고난 다음의 일은 면접관이 결정할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며 자책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지인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1차 면접을 마치고 나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이곳에서 출퇴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생각이 실현되었다는 게 지금까지도 실감나지 않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지 말자”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더라도 아예 포기하지는 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좌우명을 계속 되새겼기 때문에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인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워야 할 부분이 더 많지만, 지금까지 세웠던 목표 중에서 가장 크고 간절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아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and thicknesses.

공공기관 인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IV

지역인재 채용



- 1 306번의 도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마주한 최종합격
- 2 '나'를 탐구하여 찾아낸 공공기관 취업문
- 3 지역인재: 겨울을 이겨내는 빛
- 4 모든 것에 헛된 경험은 없었다!
- 5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사회' 활성화로
- 6 언제나 긍정적이고 슬기롭게

306번의 도전,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마주한 최종합격

창업진흥원 | 이○○



306번의 서류 지원, 12번의 면접 탈락, 4년간 공공기관 하나만을 준비하며 제가 실패했던 횃수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긴 터널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 마침내 기적처럼 찾아온 ‘최종 합격’이라는 글자가 저에게 건네준 희망을 떠올리며 이 글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는 2021년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 창업진흥원에 재직 중인 이○○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홀로 4년간 고군분투하며 공공기관 입사의 꿈을 꾸며 여러 가지 제약과 소외를 딛고 결국 꿈을 이루어낸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최고가 되기로 다짐하다

늘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 왔으나,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목표로 하던 대학을 떨어지며 현실과 타협하여 들어간 학교에서 그 안에서 1등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고가 되어야만 지방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보이는 학벌에 대한 자신감이 크지 않았기에 나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고자 대학 1학년 때부터 과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소위 말하

는 스펙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는 행정직의 기본인 경영학을 복수전공하고 30개의 대외활동을 하며 나를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의무감이 아닌 즐거움과 책임감으로 임하며 각종 서포터즈 수상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분야로의 취업을 위해 관련 직무 자격증과 어학성적 취득, 다양한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등을 하며 조금씩 직무역량을 만들어나갔습니다.

Q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고 뛰어넘다

공식적인 공공기관 채용 박람회를 비롯하여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직무 멘토링, 면접특강 등은 모두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시험을 위해 서울로 가는 것도 비용이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얻으러 타지로 가는 것이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진 기회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대지만 졸업생 공기업 현직자와의 1:1 멘토링 및 강연, 유명 NCS 강사 초청 강의, 직무 자격증 시험 비용 무료 지원, 교내 채용콘서트 등 공공기관 취준생을 위한 수많은 기회가 존재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지자체 단위로 청년들에게 다양한 인턴 체험과 직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인터넷에서 이러한 기회를 찾아 신청하고 지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며 조금 더 제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분명 지역적인 한계는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정보를 찾아 나서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한계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좋은 기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Q 세상에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하나씩 알아가는 묘미를 느끼며 신입사원으로서 차별화할 수 있는 저만의 필살기를 갖고자 사회경험을 쌓기 시작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용돈을 벌고자 시작했던 콘서트장 아르바이트에서 대민업무가 나에게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학성적 취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 영어실력을 활용해 박람회 통역원으로 일하며 어학 실력을 한껏 더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사회복지단체, NGO 단체, 공단 계약직, 연구원 인턴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행정 업무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4년이라는 시간이 단순히 취업 준비만을 한 것이 아닌, 긴 인생 속에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결코 남들보다 취업에 늦게 성공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난 날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나열해놓고 보았을 때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지만, 사소한 것들이 모여 결국엔 지금의 회사를 오기 위해 한 단계씩 거쳐갔던 것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진심을 다해 즐기면서 임한다면 목표도 달성하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와의 치열한 싸움, 마침내 끝은 있었다

필기시험과 면접의 무한 반복 굴레 속에서 ‘언제쯤이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라는 생각에 매일 불안감으로 지내왔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저는 평소에 공공기관 입사 기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필기전형’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지역 내 공공기관 필기 스테디를 만들어 내가 부족한 영역과 자신 있는 영역을 확실히 구분하여 서로가 가진 지식을 공유하며 나에게 적절한 문제 풀이법을 찾아나갔습니다. 그 후 실전 NCS 필기시험을 무조건 많이 치면서 감을 익히고 매일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험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필기전형을 통과한 후에 마지막 단계인 소중한 기회, ‘면접전형’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 수없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를 지원한 여러 직렬 지원자들과의 스터디를 비롯하여 목표 기관의 사보 구독 후 스크랩, 합격한 기관의 SWOT 분석 등을 통해 회사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면접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으로 정확한 정보를 찾는 데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나, 지역 대학 현직자 등을 직접 찾아서 생생한 후기를 들으려는 노력 등을 통해 조금 더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서류에서 면접전형까지 비수도권 지역 출신들에게 가점 혹은 일정 비율의 인원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지역의 취준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지역인재 전형 덕분에 저는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던 저의 인생에서 마침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Q 나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주변에 인프라를 탓하며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환경을 탓하던 때가 있었는데 결국엔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에 공공기관을 꿈꾸는 미래 지역인재들이 조금만 더 버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바뀐 후로는 회사 내에 지역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사람의 '역량' 이외의 것은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서, 학벌이 좋지 않아서 공공기관 입사가 힘들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그러니 한 번에 쉽게 되지 않고 합격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저 또한 남들이 이제는 포기해야 하지 않겠냐고 흔들리는 말을 할 때마다 매 순간 고비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번에도 안되면 그만두어야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자 했던 그 순간 저에게 온 기적 같은 합격 소식에 그래도 버텨내길

잘했구나 싶었습니다.

저처럼 오랜 시간 공공기관 취업 준비에 지친 지역에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경험이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창업자들의 삶에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든든한 조력자로서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2021년, 마침내 꿈을 이룬 저는 7개월 차 창업진흥원 신입사원입니다.

‘나’를 탐구하여 찾아낸 공공기관 취업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김○○



1.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공공기관에 입사하게 해준 3가지 전략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한 저는 정책수행의 최전선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매력을 느껴 대학교 3학년이 되던 때부터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를 삼았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경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며, 취업준비생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취업준비를 하던 지역은 취업 면접 스테디나 각종 취업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독학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 취득으로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서 80여 회 작성, 면접 10회의 도전 끝에 저는 2017년도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의 지역인재 채용전형(유치지역할당 인재)을 통해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저의 입사과정을 되돌아 봤을 때, 취업 스테디나 취업 프로그램 없이 지방에서 혼자 취업을 준비하며 다소 외로운 시절을 보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정보만으로 제가 공공기관에 입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음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 전형을 잘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역 인재 입사 전략 ①: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신의 장점과 역량 파악

대학시절, 저는 막연히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처럼 저는 우선 저 스스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대학시절 했던 경험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학교 내(內) 경험으로는 학생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학교행사 지원, 학과 내 다양한 학술제 참여를 통한 전공지식 확대, 모의유엔 등 대회 출전을 통한 팀 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응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의 역량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은 학교 밖에서의 여러 활동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다문화 가정 멘토링 등 각종 교육 봉사활동에 지원했으며 이후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주관하는 인도 배전망 개선 EPC 사업에 해외 인턴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밖에 각종 아르바이트(행사, 사무 등)도 경험했습니다.

특히 해외 인턴활동은 향후 지원하게 될 직무와 연관된 직접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줌으로써 향후 제가 공공기관 경영 직무로 근무할 때 제가 발휘할 수 있는 강점과 단점을 스스로 파악하게 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스스로 깨닫게 된 경영 직무에 대한 제 장점은 커뮤니케이션 역량, 문제 분석능력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창의력 등이 있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은 꼼꼼한 일처리 능력, 반복적인 일에 대한 집중력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강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시 저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직무 수행계획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 지역 인재 입사 전략 ②: 입사를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분석

저만의 장점을 파악한 후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했던 일은 지원하는 기관의 설립목적과 주요사업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스스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이 해

당기관이 필요로 하는 인재인지 고민한다면 해당기관의 자기소개서 및 향후 면접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역 인재 입사 전략 ③: 지역인재로서 본인의 강점을 활용 할 수 있는 스토리 만들기

앞서 언급한 두 가지를 바탕으로 마지막 단계에 시행한 일은 목표로 하는 기관에서 지역인재로서 본인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각 기관마다 지역인재에게 기대하는 바가 존재하고, 지역인재가 일반전형에 비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민하여 앞서 파악하고 길러온 나만의 강점을 녹여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공단에 입사 면접 당시 이전지역 출신으로서 지역민의 관점에서 공단에게 요구하는 점을 생각하며, 저의 강점인 커뮤니케이션이나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 지역친화적인 직무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어필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언급한 3가지 전략을 요약하면 자신만의 강점(무기)을 바탕으로 지역인재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명확히 했던 것이 제가 입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2. [지역 인재채용 전형의 필요성]

공공기관 입사 직후 부모님이나 친한 친구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지역인재 채용전형이 있었으니, 네가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었다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말이었습니다.

‘일반전형으로 경쟁했었다고 가정하면 과연 입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지만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상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역량을 키워 왔기 때문에 당시 주변의 저런 언급이 처음에는 저를 평가절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는 지금에서 돌이켜 보면 지역인재 전형이 제가 공공

기관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자리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깨달은 사실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지역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합격기회가 부족할 수 있는 인재에게 역량발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기관에서 활약함으로써 기관 및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지역인재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해당 제도를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스스로 지역을 대표해서 입사한 인재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게끔 공단과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조금 더 역량있는 지역인재 발굴을 위한 개인 의견]

현재의 제도만으로도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을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저의 생각을 더하자면 면접 등에서 지역인재로서의 개인의 특징과 강점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채용 절차는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채용 전형이 동일해야 하지만, 지역인재 채용 전형이 역량이 있는 지역인재 발굴인 만큼 일반전형보다 개인의 장점이나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이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하고 취업준비생들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역인재: 겨울을 이겨내는 빛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백○○



1. 꿈: 지역에 힘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안녕하십니까. 산업기술혁신 플랫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근무 중인 백○○ 연구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기술행정전문가인 테크노크라트를 꿈꿔왔습니다. 이러한 꿈을 꾸 계기는 제 고향인 전주라는 도시에서의 축적된 제 삶의 경험들 때문입니다.

전주는 굉장히 변화가 느리고,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지역에도 많은 회사와 일자리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지역을 조금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대학교 1학년 때, 첫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였는데, 학생들이 왜 본 강좌를 수강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며 매우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전체의 기업 수가 경기도 안성시 기업 수보다도 적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시면서 지역을 지키기 위해선 행정학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보라고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사는 광역지자체가 일개 경기도의 한 개 시보다도 경제 규모가 작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만든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2. 목표: 지역을 살리는 발걸음

우선 저는 제가 살아가던 전주라는 도시를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빈약한 산업구조와 지역적 한계 때문에 전라북도의 젊은이들은 꿈을 선택할 때 많은 지장을 받곤 합니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많이 없기에, 사람들은 한옥마을 등 관광지에서 서비스직과 같은 관광산업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등에서 배운 전공을 살리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고향을 등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고목의 끝가지가 점점 말라서 죽어가는 것처럼, 제 친구들의 모교인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20년이 넘는 동네 노포들이 문을 닫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상념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우연히 수강한 지방행정론이라는 강의에서 ‘지역산업에 대한 개념’과 ‘지역인재’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산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산업 구축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개념이었고, 지역인재는 이를 통해 지역을 지켜나가는 인재 풀(pool)을 구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지역혁신체계였습니다. 지역혁신체계는 교통망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를 상호 작용하며, 대한민국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현장 대학생들과 연구소들을 해당 기관에 연계하여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을 ‘지역인재’로 구성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해당 강의를 굉장히 흥미롭게 수강하며 저는 제 마음 속의 괴로웠던 터널을 빠져나와 지역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첫 시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3. 지역 인재: 꿈을 이루게 해주다

지역혁신체계의 여러 직업 중,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직장을 잡기 위해 우선 저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은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역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정책사례연구를 수행하며 관련된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이를 살릴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길고 긴 탐색의 과정을 거친 결과, 저는 지역혁신체계 중에서 지역산업을 총괄하고, 산업기술과 관련된 정책 기획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입사를 목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업부터 기술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열심히 배우고 싶었습니다.

4. 노력: 꿈을 이루어내다

그러나 해당 직업에 도전하기에 앞서, 공공 부문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의 보상관리부 인턴을 지원하여 약 5개월간 첫 직장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목포 임성지구에 있는 여의도 두 배 면적에 해당하는 보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을 옆에서 도우며 직접 보상 및 수용 프로세스를 배우고, 사업 대상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서, 민관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갖고, 약 1년간 전북지역혁신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업무 등을 수행해보며 산업과 기술혁신에 관한 전문성도 길러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2020년에 마침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입사할 수 있게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산업지능화팀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녹색인증사업 등 정부 ESG 과제와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기술 및 지식산업 분야를 현업에서 배우며, 기술혁신 및 지역산업 발전의

전문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5. 결론: 겨울을 이겨내는 마음가짐과 빛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부터 제가 배워나가고 있는 점은 ‘겨울을 함께 이겨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이는 ‘같이의 가치’를 되새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소멸 중인 지역에 살아가는 수많은 지역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그 빛을 잃지 않고, 목표와 꿈들을 단단한 근육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그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도록 함께 이겨내는 따뜻한 공공기관 직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이정표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지역인재라는 제도가 너무나도 저에게는 큰 혁신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제가 비수도권 인재 채용에 약간의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권역별 지역인재 설정권의 확대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전남 및 광주와 전북의 지역인재는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각자 완전히 다른 색채의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가점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권역별로 통합된다면 권역별 인재들이 경쟁력을 얻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지역혁신체계의 폭발적인 성장도 이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가운 겨울 속에서, 제게 따뜻한 빛으로 다가온 지역인재라는 제도의 의미가 빛바래지 않도록 저 또한 지역 발전의 길라잡이가 되어 다가올 봄을 위해, 청년들의 걸을 항상 든든하게 지키는 난로같은 공공기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헛된 경험은 없었다!

서민금융진흥원 | 최○○



Q 세 번의 신입사원, 지금의 나를 만든다

대학 졸업 이후, 세 곳의 회사를 만났습니다. 사기업 두 곳,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입니다. 사회에 첫발을 디딜 때,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고 있었으며 제가 지원한 회사도 출신 지역과 학교에 대한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사 후 겪었던 사회생활에서 학연, 지연이 꼬리표처럼 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사 내에서 지역 차별을 겪을 때마다 ‘진정으로 나를 알아주는 회사는 어디일까’ 늘 고민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이러한 고민에 대해 마침표를 찍어준 제도입니다.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담은 ‘지역인재’, 지역 토박이로서 지방에서 대학 생활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기에 이러한 저의 경험을 더 가치 있게 만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했기에 과감히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Q 지방 사람이 좁아져야 했던 것

사회생활 3년 7개월을 보내고 다시 뛰어든 취업시장은 과거에 했던 취업 준비와는 달랐습니다. 직무능력 중심 자기소개서, NCS 기반 필기시험 등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변화한 취업시장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고 지방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으로서 이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니다.

첫째, 지방은 취업 컨설팅, 면접학원 등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컨설팅을 받기 위해 서울의 유명한 컨설팅을 신청하였고,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서울로 매주 이동하며 발생하는 교통비와 체력 소모는 취업을 위해 감당해야만 했습니니다.

둘째, 취업 스터디 모임을 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니다. 취업카페에 자주 게시되는 서울 스터디원 충원과 다르게, 지방에서의 스터디는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니다. 특히, 취업 준비를 시작했던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스터디를 하는 것은 더욱 한계가 있었고, 온라인 스터디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했습니니다.

셋째, 필기시험과 면접전형은 대부분 서울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간 투자와 비용 부담이 컸습니니다. 시험 당일의 컨디션을 위해 시험 전날 서울로 이동하였고, 왕복 교통비와 그곳에서의 숙박비는 경제적으로 버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니다.

돌이켜 보면 환경에 대한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이겨내려 했던 모든 노력이 지금 이곳, 서민금융진흥원에 입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형 인재

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며 ‘회사를 선택하는 나의 기준은 무엇일까’를 수없이 고민하고 답을 내리려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타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공직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통해 제가 살아온 지역에서 근무하며 지역 내 다양한 사람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삼았습니다.

1. 서류전형

2021년 상반기, 서민금융진흥원의 채용공고를 보았습니다. 성별, 연령, 학력 등 제한 없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최종학력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자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채용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으로 타 공공기관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민금융상품 이용 경험자에게 서류 가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점은 왜 주는 것일까 생각해보았을 때, 고객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이해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공감형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또한 서민금융상품을 경험한 지원자로서 공감형 인재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으며, 이로써 '나를 알아주는 회사'일 것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이처럼 내가 이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내리고, 학창 시절부터 두 번의 회사생활까지 그 안에 있었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은 무엇인지, 그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즉 '자소서 문항에 대한 답 - 나의 경험 - 포부 제시', 그리고 이를 답을 수 있는 소재목 만들기까지, 이 순서로 구조화했습니다.

2. 필기전형

온라인 NCS 스티디를 하며 5급 공무원 시험으로 활용되는 PSAT을 꾸준히 풀었습니다. 각 영역에 시간을 재고 푸는 것은 물론이고, 오답 리뷰와 맞았던 문제도 다시 보며 빨리 푸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특히 많이 틀리는 유형의 문제를 파악하여, 실전에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 문제는 바로 스킵하고 자신 있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 정답률을 높였습니다.

또한 경제 전공 준비를 위해 TESAT*을 주기적으로 응시하여 경제 기초를 익혔습니다. 이 자격증이 공공기관 입사를 위한 우대자격증은 아니었지만, 저의 경제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더불어, 공기업 필기시험에 출제되는 경제학 문제를 모아둔 교재를 꾸준히 풀며 오답은 따로 노트에 정리하여 나만의 경제학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 TESAT: 한국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종합경제이해력 검증 시험

3. 면접전형

취업준비생으로서 1년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주말마다 온라인 면접 스테디를 했습니다. 스테디 구성은 PT 및 토론, 인성 및 경험 모의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스테디원들의 충고를 통해 기본적인 발표 시선과 자세를 잡을 수 있었으며, PT 및 토론 면접의 답변은 나의 견해를 말하고 그 견해를 갖게 된 근거 제시 등 구성하는 방법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근거 제시를 위해 신문과 금융연구소의 보고서를 매일 보며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인성 및 경험 면접은 자기소개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고, 경험을 이야기한 후 포부를 이야기하는 형식입니다. 특히 저는 키워드 중심으로 답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갈등=경제교육봉사단’을 떠올리며 키워드 중심으로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어떤 질문이든 답변하는 자세를 체화했습니다.

꽤 많은 면접을 보면서 느낀 것은 잘했다고 생각했어도 그 기관과 맞지 않아서 떨어질 수도,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적어도 면접장을 나오면서 ‘이 질문엔 이렇게 답변할걸’하고 후회하지만 얹게 면접관님들과 대화하고 나오자! 라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종면접 때에도 더욱 마음 편히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보여드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며칠 전, 학교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이직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하면 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기시험 준비를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주었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선배의 걱정에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 학교, 스펙 중심이 아닌 블라인드 채용이기에 선배의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잘 담아낸다면 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대, 비전공자, 그 흔한 영어 점수도 없는 저도 제 가치관을 이룰 수 있는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온 지역 내에서 금융 취약계층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며 서민금융의 가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자,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부합니다. '나의 일'을 찾기 위해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했던 봉사활동, 금융기관 대외활동, 직장에서의 고객 상담, 다시 뛰어난 취업시장에서의 노력 등 헛된 경험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경험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 사회’ 활성화로

창업진흥원 | 김○○



1. ‘지역인재의 채용 및 육성 → 지역사회의 활성화 및 발전’

항공사 승무원의 꿈을 꾸며 항공서비스학과로 대학을 진학했지만 어학연수 경험을 통해 기술창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루고자 지방 국립대 경영학부로 편입을 하며 경험의 점들을 찍었지만, 연일 들려오는 지역대학의 소외 현상, 수도권 중심의 취업지원 인프라를 접하다 보니 지역의 한계로 인해 점들이 선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기술창업 제도지원의 꿈을 위해 편입을 했지만, 결국 지역 대학의 꼬리표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지역대학이란 타이틀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으로 찍었던 흐릿한 점들 사이로,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통해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오히려 지역을 잘 안다는 강점이 될 수 있는 선명한 점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취업의 선으로 잇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여러 선이 이어져 면으로 완성되었고, 지역인재 육성 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지역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진흥원의 일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경험의 면들이 결합해 지역사회 발전 및 활성화라는 결과 중 하나로 지역기

반 창업기업 모집 경쟁률 88:1을 달성*했던 저의 지역인재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분투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2021년 주요 창업기업 지원 사업 모집 경쟁률 평균 6:1

2. '지역 경험'의 점을 찌다

대학 입시 때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며 항공 서비스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우선 지역 토박이로 초·중·고·대학교를 진학하다 보니 수도권 대비 다양한 환경과 기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아 21살이 되던 해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결정했고 대학생 창업에 대해 도전하는 필리핀 현지 대학생들과 문화교류 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 동안 주 2회 대학생들과 함께 활동했고, 치의학대를 다니던 또래 학생이 의료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기술창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8개월의 기간 동안 필리핀 친구와 기술창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며 기술창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영학부로 편입을 준비하면서 당시 타 학부생 신분으로 경영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경영학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역대학에서 수업을 듣고 편입을 준비하다 보니 수도권 대비 어려운 관문들이 많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기 전부터 지역대학 인프라에 대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편입 내용 공유와 온라인 영한 번역 봉사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3. '지역 취업'의 선을 긋다

저는 편입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지역에 대한 한계점을 빨리 느끼기 시작했고, 지역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짧은 기간에도 충분했습니다. 편입을 준비하면서도 느꼈던 지역의 소외감이 취업으로 이어져있는 것 같아, 지역의 단점을 지울 수 없다면 강점으로 활용해야겠다는 의지로 정부의 여러 지원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지원제도를 찾아 보니 조금만 관심을 갖고 찾아봐도 정부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취업 설명회들이 많았고, 이를 통해서 인재를 담은 그릇이 수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인재를 채용하고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져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역인재 채용 및 육성에 대한 지원제도를 접하고 지역에서 강점을 갖기 위해서 편입 후 경영에 대한 인식을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대전지역 경제금융 교육을 진행했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통해 향상된 영어 실력으로 영문 번역 봉사를 하면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는 온라인 봉사활동 등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습니다.

지역인재로서 지역을 살리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전공을 살린 지역봉사도 꾸준히 이어 왔습니다. 기술창업과 기술경영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니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와는 다르게 어르신들은 기술창업의 아이টে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술소외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술 발전 소외 방지 교육을 기획해 매주 지역복지관에서 모바일 사용 방법,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 신기술 사용방법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다 보니 나의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더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잘 활용했던 시스템은 2011년도에 구축된 공공기관 채용정보 시스템 ‘잡알리오’였습니다. 전체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선택과 본인의 업무 분야 등의 상세한 분야까지 분류해서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채용정보가 한 페이지에 일원화되어 확인할 수 있는 편리함이 컸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 및 저의 업무분야와 부합하는지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자 편리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10년이 지난 2021년도 11월에는 잡알리오가 기존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서 접근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더 편리하게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알리오 플러스'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공공기관별 사업정보, 우수사례 등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고도화하여 지역에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대학이라는 한계로 저의 지역에 대한 열정이 가려질까 늘 걱정이 많았지만 NCS와 블라인드 채용 방식 등을 통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가려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저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면접에서도 블라인드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름과 소속 대학 등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은 고려되지 않았고 순수하게 능력 중심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렇듯 저는 지역대학 경영학부로 편입하면서 수많은 점을 찍었고, 그 점들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알리오 홈페이지를 통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 소개, 채용공고 게시의 일원화, 그리고 NCS였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지역인재 채용제도란 인사 채용상의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용 후에는 취업과 직업 만족도를 위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게 해준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대해서 큰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결국에는 외지인이 아닌 본인 지역의 인재가 본인의 지역과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4. '지역 창업 활성화'의 면을 채우다

저는 대학을 나온 지역에서 지역의 경험을 강점으로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 저의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에 입사 후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예비)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기술창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인재 육성의 기본 목표는 지역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지역 인재가 수도

권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더 나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저의 업무에 큰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니 지역에서 창업하고 있는 창업자들을 더 바라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업의 성과도 능률도 높아지는 지역인재 육성의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게 되었고,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이라는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창업하는 사업 모집 경쟁률도 88:1을 달성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지역 창업자를 만나면서 지역 인재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고,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더 뜻깊은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도 조직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5. '지역 인재 채용제도'를 통해 지역 성장에 입체감을 입히다

어느 시대나 지금이 취업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지역의 취업준비생들은 시대를 떠나서 늘 취업이 어려운 시대라고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제도와 잡알리오, NCS, 지역 연계 취업지원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기회는 활짝 열리고 미래는 밝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인재 채용제도 실행이 2018년도부터 시작해 4년 차가 되어가는 현재, 제도의 양적인 다양성을 확보하였고 조직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승진, 보직관리 등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인재 채용 후에도 지역인재 육성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읽는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분들도 본인의 지역에서 역량을 키워 결국에는 다시 본인의 지역사회를 일으키는 인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슬기롭게

한국국토정보공사 | 주○○



“너는 어디를 준비하고 있니?” 대학교 진로상담에서 교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취업?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저 대학 캠퍼스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던 나에겐 오지 않을 멀고 먼 이야기만 같았었다. 취업준비를 하려니 나에겐 없는 것이 너무 많았다. 더욱이 동아리, 대외활동 경험도 없는 우물 안 개구리였다.

🔍 LX,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전공인 통계학은 내가 간절히 원해서 전공한 학문은 아니었다. “통계학이 요즘 뜬다.”, “나중에 진로의 폭이 넓을거야!”라는 말만 듣고 선택한 학과였지만 막상 취업의 길을 찾아 보려니 준비가 없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 사장님이 우리 학과의 명예교수로 오시게 되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취업으로 고민이 많은 나에게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소개해 주셨다. 입사 시험에 통계학 과목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찾아 보았다. 측량과 공간정보? 지도의 점들을 실제 땅에 표시해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를 축약했다. 하지만 통계학만 공부해온 나에겐 낯선 직무였고 조금은 망설여졌다. 하지만 계속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회사를 다녀보고 싶었다.

Q 나는 전라북도 지역인재야

국토정보공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지적관련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인가? 마침 전북 지역본부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자격증대비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또한 국토정보공사 본사가 전주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전북 지역인재 채용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었다. 지적측량학, 지적학, 지적법규를 공부할수록 너무 재미 있었다. 정기 기사시험에서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1달 뒤에 기적처럼 채용공고가 나왔다.

Q 욕심이 났다

단지 산업기사만 취득했을 뿐인데 나에겐 자신감이 넘쳤다. 취업 준비를 시작한 지 3개월만에 기회가 찾아 왔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집을 나서 독서실에 갔고 수능을 준비했던 고3으로 돌아간 듯 공부했다. 아니 이렇게 고3을 지냈다면 어쩌면 더 높은 대학을 갔을지도 모르겠다. 첫 술에 배부르려던 나는 “안타깝게도 귀하는 불합격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험에 응했다는 것에 큰 만족을 느꼈고 다음 시험은 합격 문자를 받고 싶었다.

Q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여유가 생긴 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카카오톡 단체 오픈톡방과 네이버 카페의 커뮤니티를 찾아냈다.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었고, 함께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 나는 점점 질문을 하는 사람에서 답변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너무 기뻐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채용공고가 올라왔다. 국토정보공사 서류를 통과하고 마지막 스피트를 올렸다. 그렇게 나는 이번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뒤에 면접시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 곧장 서울로 올라가 스터디를 모집했다. 취업준비 기간 중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장 의미 있고 기억에 남는 시간들이었다. 우리는 다같이 합격이라는 목표를 갖고 예상

질문들을 모아 스터디를 진행했고 서로에게 필요한 피드백을 해주었다. 열심히 준비한 면접시험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귀하는 최종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년 4개월 취업 준비기간 끝에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4개월의 인턴생활

공사에 최종 합격하였지만 아직 4개월의 인턴기간이 남았다. 4개월 동안 나의 목표는 두 가지. 첫 번째는 항상 미소를 장착하기, 두 번째는 빠르게 직무에 적응하기. 나는 이 두 목표를 갖고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그토록 꿈 꿔던 직장에서 하나하나 배우는 것이 새롭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고객들을 대할 때 저절로 미소가 나오게 되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업무를 대하고 적응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든든했던 지역인재채용

“공기업 취직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지방대학에서 할 수 있을까?”, “너의 전공과는 전혀 다른 길이고 NCS도 새로 공부해야 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라며 제가 국토정보공사를 목표로 정하고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말입니다. 무(無)의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주변에 자문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 출신 인재에게 주어지는 ‘지역인재 채용제도’가 있었고, 전공과 NCS 공부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만큼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LX 전 사장님과 의 인연과 전북 지역본부의 자격증 수업이라는 운도 따라주었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저와 같이 목표하는 공기업에 지역인재 채용제도 이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비수도권 인재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기보다 적용 지역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e background is a solid blue color. It features several abstract, semi-transparent blue shapes: a large U-shaped curve at the top, a smaller U-shaped curve below it, a circular shape with diagonal hatching on the left, and a large, thick, curved shape on the right. At the bottom, there are several horizontal, rounded rectangular bars of varying lengths. The text is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ge.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V

장애인 채용



- 1 나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선다
- 2 청각장애 청년의 4년간의 일기, 그리고 5가지 이야기
- 3 느리지만 강한 나의 성장기
- 4 우리도 당당히 밥벌이합시다!
- 5 망설임을 넘어 도전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 6 다시 시작할 준비

나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선다

한국남부발전 | 박○○



사람은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사람은 귀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산너머 못 보기는 마찬가지
 강 너머 못 듣기는 마찬가지
 마음은 밝으면 마음 귀 밝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새 세상 열리네

< 사람은 눈 밝으면 얼마나 밝으랴 > 윤석중

내가 “장애인이니 이정도만 해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되뇌이는 윤석중 시인의 작품이다. 어릴 적의 나는 양안 모두 시력이 1.5 이상으로 좋았다. 그러나 고등학생 시절에 얻은 병으로 시력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축복일지 저주일지, 나는 후천적 장애인이기에 눈이 밝았을 때, 몸이 건강했을 때의 감각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더더욱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이 글은 그런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취직하기까지의 이야기다.



내 인생의 두 어려움

내 장애인으로서의 첫 난관은 사회적 시선이었다. 나는 이미 장애인과 같이 다니는 중학교를 다녀보았기에 몸이 불편한 친구들에게 가해지는 시선이 어떤지 옆에서 지켜보았다. 개중에는 불편한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교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미 나는 그때부터도 동공의 움직임이 느려, 흔히 말하는 사시처럼 보이고 있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보고 말 사람들도 아니고, 3년 동안 같이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들리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일 학년이 끝나기도 전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내 장애는 모두에게 공유되었고, 나는 친구들의 배려와 동시에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느껴야 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난관은 신체적 어려움이었다. 생활에 불편함을 가장 실감한 것은 책을 예전처럼 읽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부터였다. 내가 진학한 곳은 인문계 고등학교였기에 모두가 아침 8시부터 등교하여 저녁 10시까지 공부하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만큼 해야 하는 공부도 많았고 항상 책을 끼고 살아야만 했다. 원래라면 나는 책을 좋아했기에 단순히 책을 본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려움을 느끼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부터는 읽는 속도가 느린 것은 물론이고 장시간 책을 읽는 것도 어려웠다. 가뜩이나 쉽지 않은 입시에 신체적인 문제까지 더해지자 나는 점점 자포자기하게 되었다.



합리화

내 인생을 가장 좀먹은 것은 합리화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주변에서 장애인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나 자신을 장애인으로서 생각하게 만들었고, 신체에서 기인한 현실의 어려움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런 와중에도 학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맞닥뜨려야 했고 난관에 대한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점점 상황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쏠려나갔다.

“몸만 멀쩡했다면...” “나는 장애인이니까”

이 생각은 전가의 보도처럼 어려운 일에 부딪힐 때마다 도망갈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도피는 본격적인 취업 준비를 할 때까지 이어졌다.

현실을 실감하다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실감하기 싫어도 취업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스펙을 쌓기 위해 지원한 인턴십이 모두 떨어진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자기계발을 등한시했던 탓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현실을 체감했다. 아무런 스펙이 없는 나를 어느 누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직을 시켜줄까? 서류전형조차도 넘지 못할 벽처럼 느껴졌다.

멘토를 만나 나를 받아들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휴학을 했다. 사지는 멀쩡했기에 아르바이트, 봉사 등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았고, 덕분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많은 멘토들을 만났지만 그중에서도 감사한 만남은 같은 장애인으로서 사회에 나와 독립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은 나와 달리 자신이 가진 장애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살면서 맞닥뜨릴 어려움 중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 삶의 태도에 매료되었고, 이제는 정말 나 자신이 변화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나를 직시하고 NCS를 만나다

우선 나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나마 SWOT분석을 하였다.

장점은 장애인이고, 계산이 빠르다는 점

단점은 장애인이고, 읽기가 느리다는 점, 공부시간이 짧다는 점

여기서 장애인이라는 양날의 검을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CS기반 블라인드채용'이었다. 채용전형이 일관성이 있어 준비해야 할 것이 명확했고, 무엇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장점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NCS기반 채용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뉘었다.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서류전형은 대부분의 경우 가점이 더해졌기에 토익과 한국사 같은 기본적인 스펙으로 준비했다.

문제는 필기전형이었다. 약한 시력으로는 빨리 읽는게 힘들어 속독이 중요한 NCS에서 상당히 불리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속독으로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 훈련을 통해 속독하는 방법을 배웠다. 공부시간이 짧다는 단점은 극복하기 어려웠으나 읽기 속도는 극복할 수 있었다.

전공시험은 내 장점인 계산력을 백분 활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준비하고자 했다. 채용전형을 분석했고 상대적으로 계산 비중이 큰 회계학을 위시한 상경계열을 공부했다.

여전히 힘든 공부였지만 내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주저함이 사라졌다.

면접은 나의 스피치와 단점을 교정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대비했다. 거울을 보며 면접 연습을 했고, 이를 녹화하여 피드백하는 것으로 준비했다. 처음엔 나의 어설픈 모습을 마주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미 결심한 나였기에 점점 능숙해졌다.



독립적인 객체로 세상에 서다

힘든 과정을 거쳤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출한 첫 이력서가 서류를 통과하였고, 필기를 통과하여 최종합격했다.

장애인은 나에게 치부였고, 바라보기 힘든 사실이었다. 평범하게 지내던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의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으나 감사하게도 삶의 멘토를 만나서 나 자신을 마주볼 수 있었다.

끝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나의 체험이 세상에 나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일생 동안 만날 많고 많은 어려움 중에서 하나의 어려움을 만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를 마주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간 봉오리가 꽃을 피우듯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청각장애 청년의 4년간의 일기, 그리고 5가지 이야기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이ㅇㅇ



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에게 산림치유 등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제1장: 장애라는 현실과 마주하다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고객과 접점이 높은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고, 호텔경영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업 도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각장애를 얻게 되었고 일상을 포기해야만 했던 현실에 좌절했다. 이때 청각장애인 무용수의 공연을 볼 기회가 생겼다. 그녀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음에도 바닥에 울리는 음악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다른 무용수보다 반 박자 느렸지만, 오히려 부조화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더욱 독창적인 춤을 선보였다. 장애가 단점이 아닌 차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이렇게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 시작되었다.

🔍 제2장: 세 가지 역량, 그리고 비전이 생기다

장애를 가진 내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고민해 봤다. 청각장애 특성

상 비장애인보다 집중력이 높다는 점을 알았고, 장애라는 단점을 차별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끈질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쌓은 역량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숫자에 대한 감각을 길렀다. 어떤 업무든 간에 숫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므로 정확도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회계 원리를 시작으로 재무회계 공부를 시작했고, 재경관리사 및 ERP 정보관리사 등 1년 반 동안 자격증 4개를 취득할 수 있었다.

둘째, 통계분석 능력을 쌓았다. 요즘 업무 대부분이 디지털화되면서 다양한 자료를 빠르게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한 통찰력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IT융합 SW개발 교육과정을 네 달간 이수했고, 기본적인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다양한 직무경험을 쌓았다. 청각장애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대학 취업진로지원처를 통해 영업·마케팅부터 회계 직무까지 네 번의 인턴 경험을 쌓으며 직무 적합성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세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직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기획 업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다양한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나만의 비전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Q 제3장: 대기업 정규직 전환에 탈락하다

세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IT 분야 대기업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했고 사업기획 직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다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내 비전과 일맥상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리 회사생활은 만만치 않았다. 직무 특성상 대내외 협의가 매우 잦았기에 청각 장애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래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방안을 고민해 봤고 다음의 세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첫째, 발음교정 과외를 받았다. 청각장애로 인해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주말마다 발음교정 과외를 받은 결과, 업무 상황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 위주로 발음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둘째, 음성-문자 변환 앱을 활용했다. 상대방이 말하면 그 내용이 문자로 변환되어 태블릿 화면에 표시되는 구조이다. 회의 때마다 활용한 결과, 어느 정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셋째, 미니칠판을 활용했다. 발음 정확도가 향상되었어도 전문용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회의 때마다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니칠판으로 이미지 혹은 수식을 표시한 결과, 전달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심사에 탈락했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로는 청각장애인은 사업기획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청각장애인을 채용한 사례가 없어 다른 유형의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점이다. 다른 복합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했음에도 청각장애라는 현실의 벽과 마주했고 그것은 너무나도 높았다.

제4장: 공공기관에 대한 편견은 착각이었다

정규직 전환심사 탈락 이후에도 타 대기업에 여러 번 입사 지원했으나 불합격이 계속되었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다. 그러던 중에 현재 재직 중인 공공기관 채용공고를 발견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직문화가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업무가 별로 없다는 편견 때문에 딱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마냥 백수 신세로만 살 수 없지 않은가? 공공기관 준비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재무회계 지식과 인턴 경험으로 쌓은 사업 분석능력 덕분에 운 좋게 최종합격을 했다. 그렇게 공공기관 생활이 시작되었다.

입사하자마자 민·관 협력사업을 기획하는 업무를 배정받았다. 여태껏 해왔던 업무와 유사했던 터라 익숙했지만, 직무 특성상 청각장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었다. 하지만 현 기관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기에 그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

첫째, 입 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를 전사에 배포해 줬다. 나는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아야만 의사소통할 수 있다. 업무 대화뿐만 아니라 사적인 대화를 할 때도 팀원들은 투명마스크를 착용했고 코로나19라는 힘든 상황에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둘째, 서로 간의 소통 빈도를 높여줬다. 처음 보는 사람은 내 말을 70%밖에 알아듣지 못한다. 다만,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내 발음구조에 익숙해지므로 점차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팀원들은 메신저 혹은 메일보다는 구두로 소통을 많이 해주었고 원활한 소통에서 더 나아가 팀워크가 향상될 수 있었다.

셋째, 장애를 가졌어도 혼자 힘으로 스스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즉, 할 수 있는 데까지 스스로 최선을 다하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만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매우 중대한 전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 이제 성과를 낼 차례가 왔다.



제5장: 산림청 주관 '공공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다

나의 비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고민해보았다. 조사 결과, 약 7만명의 장애학생이 코로나19로 야외교육 금지 등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회문제를 발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기획에 바로 착수했고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역 준수와 동시에 자연 속에서 야외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끔 1개교당 휴양림 1곳을 전체 대관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둘째, 시·도 교육청과 특수학교를 직접 방문해 장애학생의 수요를 파악하고,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검토했다. 셋째, 국립특수교육원에 협조를 구해서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를 개발 및 구성했다. 넷째, 모든 과정을 종합해 교육부 측에 제안한 결과, 사업이 성사될 수 있었고 정부부처·공공기관 간 협업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이 사업은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2021년 범정

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단계 진행 중에 있다.

(참고: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끝맺음

나는 내 자신이 단지 몸이 조금 불편한 “비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다. 하지만 다르게 보면 장애는 단점이 아니라 본인이 더욱 발전하게 되는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3년간의 취업 준비, 1년간의 공공기관 근무를 통해 업무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년간의 일기를 여기서 끝맺는다.

느리지만 강한 나의 성장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



1. 온실 속의 화초

‘온실 속의 화초’, 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인 외할머니가 나를 표현하는 말이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서도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온실 속의 화초’ 같다는 말씀을 자주하셨다. 고생 한 번을 해보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한 나약한 존재라는 의미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싫었다. 아마 그 말이 싫었던 결정적 이유는 나 스스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정도는 아니었지만 내가 원하던 것은 대부분 원하던 대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또래에 비해 용돈을 많이 받기도 했고 사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등 원하는 것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해주셨다. 외가와 친가 모두에서 나는 첫째 아이였고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였다. 나는 어른들이 나를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흔히 말하는 ‘멘탈’이 강하지도 않다. 그래서 그 말이 싫었던 것일까?

2. 생명의 위협과 후천적 장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우측 다리가 아팠다. 무릎을 구부리기 어려웠다. 미련하게도 수개월 간 대수롭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곧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이라 공부하기도

바블텐데 계속 아프면 문제가 될 것 같아 병원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물리치료, 침 치료 등 병원을 옮겨다니며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는 없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는 야자시간도 병원을 가야 해서 자주 빠졌다. 친구들은 내가 야자하기 싫어서 피병을 부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 심각성을 깨달았고 의사 선생님께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검사 후 진단받은 골육종이라는 암.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암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암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드라마 주인공이 앓던 암이 나에게 있으니 곧 죽겠구나 생각했다. 그 이후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몇 개의 단어와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항암치료와 수술, 수차례의 재발과 전이, 다시 치료와 수술. 살면서 8번이나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장애가 생겼다. 당시 나는 나라에서 인정해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부모님께서서는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어린 나에게 그 사실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 같다.

3. 포기하는 삶과 포기하지 않는 삶

고등학교 3학년쯤부터 본격적인 치료와 수술이 시작되었다. 대학 입학은 생각할 수 없었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치료 과정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내 몸은 이전과는 달랐다. 체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항상 몸이 약했고 장애가 생긴 다리로 인해 보행하는 것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치료는 끝났는데 이전과 같은 생활로의 회복은 끝나지 않았다. 친구들의 대학생활,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TV 속에 행복한 사람들을 보며 나의 마음은 어둡고 깊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1년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다. 이야기의 내용은 나에게 대한 것이었다. 내가 포기하는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가족들 모두가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가족들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 없어서 나는 정신 차릴 수 밖에 없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지금부터 내 인생은 가치 있는 하루들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열정을 다해 살았던 것 같다. 나는 다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재활과 입시 준비를 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살면서 나도, 우리 가족들도 이전의 삶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재활이 성공적이었다. 당시 치료사가 말했던 “운동선수가 하는 만큼의 운동과 필사적인 재활”을 절박하게 수행했고 정말 장애를 많이 극복했다. 공부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의 모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 보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다. 포기하지 않는 삶의 결과물이었다.

4. 3개월 인생과 3년 인생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암 재발이 있었다. 치료와 요양을 위해 휴학을 최대치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전처럼 포기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었다. 3개월 주기로 병원의 정기검진이 있었다. 검진 결과에 따라 다시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와 수술을 할 수도 있었다. 때문에 매번 3개월간의 계획만 생각했다. 사소한 계획조차 검진일자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나는 그렇게 3개월짜리 인생을 살고 있었다.

취업할 시기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완전한 독립을 할 나이가 다가오면서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점차 커져 갔다. 한편으로는 현실로 다가온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더라도 내가 3개월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암과 장애라는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내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되물었다. 그리고는 답을 얻었다. 마음가짐. 그것만 달리 생각하면 소중한 의미 있는 하루들을 갖겠다는 나의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1년, 3년 점차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5. 배움, 그리고 배움의 시작

나는 인생에 꽃같은 시기인 10대와 20대에 많은 부분을 나의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희생 당했다고 불만을 갖기도, 핑계를 대기도 하며 도망가거나 합리화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 20대 후반부터 버릇을 고치고야 말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 노력의 방법은 배움이었다. 배움은 학문을 공부하는 것 이외에도 내 마음가짐에 따라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내가 어리석어 늦게 깨우친 만큼, 늦게 시작한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했다. 조금은 조금했었다.

먼저 배우고자 했던 것은 나를 이해하는 것이었다. 나를 이해하려면 내가 가진 장애에 대해 이해해야 했다. 나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만들어내는 것, 나 스스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배움의 출발점이라 생각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학생봉사단에 약 1년간 참여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했었고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2곳에서 기자단, 정책 모니터링단에 참여하면서 장애인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졌다. 장애가 있는 대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모아 여행 관련 배리어프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설득하고 제안했다. 시각, 청각, 지체, 언어 등의 장애 대학생들을 모았고 여러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도 했다.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의 나는 나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6. 공공기관 취업과 성취의 방법

내가 직업으로 삼고자 했던 일은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다루고 실행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의 취업을 목표로 했다.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을 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해보았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서는 필수로 준비해야 할 NCS라는 것을 공부했다. 다행히도 내가 목표로 했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직할 수 있었다.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하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다. 내가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말할 수 있다.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 약점과 강점 그리고 내 장애를 이해하는 것, 즉 한마디로 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과 관련된 경험을 하는 것이고 셋째는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지속하는 것이다.

7. 느리지만 강하다

나는 나를 성장시키기에 너무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나아가야 하겠지만 나는 똑똑하지 못하고 많이 느리다. 그래서 부지런을 떨어야 하고 꾸준함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내가 느리지만 강한 이유이다. 취업 후에도 나는 사회에서의 또 다른 나를 정립해 가고 있다. 그리고 배우고 있다. 근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내가 취득하고 싶었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나는 느리지만 강하다.

우리도 당연히 밥벌이합시다!

한국에너지공단 | 전○○



🔍 공기관에 입사해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들

어릴 적부터 한 쪽 다리가 불편했던 나는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되었던 것 같다. 예를 들면 체육시간에 당연하게 교실을 지키는 일, 치마를 입고 싶어도 당연히 바지를 선택하는 일, 신체적 활동이 많지 않은 전공을 선택하는 일.

나는 그렇게 아동복지학을 전공으로 삼게 되었다. 나중에 졸업하면 나처럼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위해 일해야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 다니면서 어떤 점이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나에게 딱 맞는 전공일꺼야. 그런데 학교 생활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 전공 공부는 재밌었지만 방학 때마다 나가야 했던 어린이집 현장실습과 사회복지기관 실습은 고역이었다. 어떤 기관에서도 다리가 불편한 나를 반겨주는 곳이 없었고, 거절을 여러 차례 당했던 어떤 날에는 과 동기들 앞에서 눈물을 실새 없이 흘렸다. 다들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3학년 2학기 무렵, 나는 현장에서 일하기에는 내 의지와 내 마음이 턱 없이 약하다는 걸 깨달았다. 입학 전의 굳세었던 내 포부는 어느새 없어졌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찾아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정직, 특히 공공기관 입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채용준비는 비장애인이랑 똑같이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컴퓨터활용능력, 토익,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합격자소서라고 올라오는 자료들도 틈틈이 읽어보았다. 공공기관 채용공고가 늘 올라오는 ‘공공기관 알리오’ 사이트를 매일 들여다보았고, 내 자기소개서가 잘 쓴 자기소개서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이리저리 지원을 해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너지공단 채용형 인턴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사무직, 기술직, 장애인, 고졸, 보훈 등 여러 분야에서 꽤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채용인원 5인은 나에겐 정말 큰 숫자였다. 코로나 확진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고, 채용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에서 어쩌면 나에게 가장 큰 승산이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본격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만을 위한 채용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다.

🔍 계속 두드리면 정말 열린다

자기소개서는 평소에 준비해 놓았던 자격증과 영어 점수를 활용하여 작성했고, 필기준비는 최근에 공기업에 입사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준비했다.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어야 하는 줄 알고 한 문제, 한 문제에 집착하느라 시간이 늘 턱없이 부족했는데, 친구가 버릴 문제는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자신 있는 문제에 시간을 쓰는 게 좋을 거라고 했다. 친구의 조언을 들으며 문제를 푸니 정답률은 점점 올라가고 있었다. 사실 필기를 보고 나와서는 잘 못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었는데, 며칠 후 필기 합격창을 보게 되었다. 이건 진짜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면접 준비에 뛰어들었다. 평일, 주말할 것 없이 면접 준비만 계속하면서 조금 지치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와서 힘들다고 대충 하면 나중에 너무 후회할 것 같았다. 너무 추웠던 12월, 겨울의 초입에서 최종면접을 보게 되었다. 마스크를 끼고 면접에 임하느라, 더 크고 포박포박한 말투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했고, ‘몸은 불편하지만 이렇게 웃으면서 열심히 살았다’라는 인상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제 와서 솔직하게 하는 말이지만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에 80%는 합격을 예감했던 것 같다. 정말 신기하게도 상황면접 질문이 내가 딱 하루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했던 내용이었고, 면접관님들이 내 대답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것 같다고 말씀 해주시기도

했다. 일주일이 흐르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읽고 싶었던 문구를 드디어 읽게 되었다. “전OO님, 합격을 축하합니다!!”를.

면접 중에 끊임없이 노력해서 어떤 걸 성취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 받았던 게 불현 듯 떠올랐다. 대학시절, 나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실습 기관에서 모두 거절을 당했었는데 겨우 1곳에서 실습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었고, 정말 열심히 했었다고, 그래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며 두드리면 이를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면접관님에게 대답했다. 정말 끊임없이 간절하게 두드리면 안 되는 일은 없단 것을 최종 합격했던 날,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최종의 최종까지 열심히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인턴 기간은 입사 교육을 포함해서 약 두 달이었다. 두 달의 시간동안 부서에 잘 적응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지 잘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 두 달간 수행한 업무 내용을 가지고 임원진PT를 보아야 하는데, 이 때 부서원이 나에게 주는 점수와 PT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다.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사수와 팀장님의 조언이 정말 컸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면 좋을지 큰 틀을 만들어주셨고, 내용 하나하나, 글씨체 하나하나 모두 신경 써주셨다. 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일일이 나에게 신경을 써준다는 것 자체에 정말 감사했다. 동기 몇 명과 퇴근하면 함께 발표하는 것을 봐주기도 했고 발표하는 자세와 목소리 같은 것도 서로 피드백 해주었다. 어떻게 보면 경쟁자일 수도 있는데 우리 꼭 다 잘해서 “주임”이 되자고 의지하면서 준비했다.



우리도 당당히 밥벌이합시다

PT발표가 끝나고 일주일이 조금 되지 않아 6급(주임)에 임용한다는 메일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얻고 싶었던 직함, “전OO 주임”이 되어 에너지복지실로 발령받게 되었다. 공단은 나를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 주었고, 채용 과정 내내 공정한 절차를 진행했고,

그래서인지 내 진심과 역량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내가 장애가 있다 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닌, 다 같이 으쌰으쌰해줬던 동기들과 내 열정을 알아봐준 선배님들이 있었기에 이를 수 있는 결과였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공공기관 입사에 성공하고, 전공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나씩 해내면서, 그리고 회사 내에서든 밖에서든 무언가를 하나씩 성취해내면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장애인이니깐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하자'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나는 여태 현실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는다. 장애인이, 특히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취업시장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 또한 어떤 때는 도전하는 것조차 무서울 때가 있었다. 허락보다는 거절을 더 많이 당하고 포기가 빨랐던 우리들. 시선의 폭력을 느껴야만 했던 우리들. 그럼에도 나는 많은 장애인들이 더 세상 밖으로 많이 나와서 더 큰 꿈에 도전해보길 바란다. 나는 많은 장애인 취업 준비생들이 스스로를 가두지 않길 바란다. 열정과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 사회에서 만나 당당하게 밥벌이해 먹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망설임을 넘어 도전으로, 그리고 희망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 박○○



🔍 들어가며

뜻하지 않은 불행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어오곤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열정이 넘친다고 해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용에 주저하게 되는 현실을 마주하며 취업에 대한 희망은 장애를 갖게 된 후 체념하고 지냈습니다.

그런 저에게 늘 새로운 정보를 주고, 내가 하고 싶다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은 대한민국정부와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던 현실로, 병원 치료를 마치고 장애인 등록을 하고 나니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저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특별채용을 통해 비록 임시직이지만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봉사할 수 있었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모범직원으로 뽑혀 서울시 강동구 의회 의장상을 수상하는 등의 보람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갈증처럼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해서 지적측량에 대한 어렵풋한 감이나마 가지고 있었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과도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지적측량과 관련된 업무를 처

리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의 모습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언제부터인지 저도 전공을 살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 망설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며...

그러던 저에게 운명처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저는 그 기회를 잡기로 했습니다.

전공을 조경학과를 나왔지만 지적측량과 관련된 업무 경험이나 자격증이 없어서 절대 불가능할 거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무기계약직(장애인) 채용을 시행하며 맞춤형훈련(자격증 취득과정) 훈련생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꼭 해보고 싶고, 열의도 가지고 있었지만 관련 업계 경험도 없고, 자격증도 없는 저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어느덧 50이 된 저에게는 크나큰 망설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채용에 나이, 성별 제한이 없었지만, 과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내 이력을 보고도 채용을 해줄까?

지적측량과 관련된 아무런 사전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발해서 자격증 취득을 도와주면 서까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까? 혹시 정부 정책에 억지로 따라가려고 단지 채용공고만 내고,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등의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평소에 꿈꾸어왔던 기회였고, 오랜 망설임 끝에 지원하지 않으면 그 또한 후회로 남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지원서를 보냈는데 서류심사 합격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면접 시에는 실제 제 나이와 성별을 보고 탈락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심사위원들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공정한 질문을 했고, 저 또한 꼭 채용되고 싶은 이유와 앞으로의 각오를 설명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적측량과 관련된 사전지식이 별로 없던 저에게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자격증 취득과정 채용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합교육은 할 수 없었지만, 매일 지적학 전공 교수님이 온라인강의를 통해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교육을 해주셨으며, 그 강의를 성실히 수강하며 실력을 쌓아 무사히 지적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사를 위한 모든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저는 감히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한국국토정보 공사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우리가 생각조차 않고 있던 기회를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주었고, 그 채용과정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만큼 공정하고 선입견 없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공정한 혜택을 제가 받을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행운이었고, 제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저는 자격증 취득과정 교육과 지적기능사 최종합격 후 2021년 6월 10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남서초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지사장님과 직원분들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저를 환영해주셨고, 50이라는 나이에 여성으로 입사한 제 이력을 보시고 진심으로 감탄하고 격려해주시며 제가 입사 후 적응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입사 후 회사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은 많고 경험은 일천한 신출내기 사원이지만 앞으로의 길이

저의 하고자 하는 노력과 주변에서 진심으로 도와주시는 지사장님과 같은 팀원분들로 인해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물론 앞으로 늘 순탄하지는 않을 것임을 알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그 구성원들과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으리라 자신합니다.

마치며

보통의 입사 후기나 소감문에는 흔하게 따르게 마련인 미사여구도 많고 그런 말들로 저의 입사 수기를 마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공기관, 그중에서도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채용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교육과정을 저에게 제공해주었고, 그 구성원들은 모두 열린 마음과 따뜻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는 진정으로 멋진 대한민국 최고의 공공기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준비

서민금융진흥원 | 김○○



길고 긴 끝날 줄 모르는 터널 속에서 늘 생각해 왔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최선일까. 왼팔 하나로 더딘 생활을 해야 하고 발걸음도 위태롭고 얼굴 표정도 일그러져 버린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나조차도 의문이었다.

그럼 왼손을 오른손 못지않게 키워서 일상에 복귀하는 건 어떻게 하며 몇 년을 준비했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알았다. 오른손이 20년간 얼마나 많은 경험들로 길러져 온 도구였는지 그 대단함 앞에 뼈저리게 무릎을 꿇었다.

나는 대책 없는 나를 뜯어고치고자 많은 것을 버렸다. 디자인 전공이라 놓지 못하던 프리즈마 색연필들과 아크릴물감과 캔버스. 졸업 작품 전시이미지들까지도 모두 다. 우울한 에너지가 더 이상 제 힘을 다하지 못하도록 내 주변에서 치워버렸다. 그리고 깎두기 공책을 샀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초등학교 때도 빨리 쓰고 나가 뛰어놀 생각에 막 써내려갔던 나인데. 20살에 이걸 이렇게 간절하고 정성 다해 쓸 줄이야. 근데 확신이 있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서 나는 계속 했다.

본격적으로 취업 공부를 하려고 자격증과 NCS 관련 서적을 샀다. 디자인 활동들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게도 방에서 하루 종일 책만 봤고 그런 내가 나도 신기했다. 그리고 면접 준비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첫 면접을 나갔다. 본문부터 말하자면 깔끔하게 떨어졌다. 아니 하나도 안 깔끔했다. 우려하는 표정들과 질문들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도 내 모습이 몹시 불편했을 것이다. 근데 그때의 나는 남까지 생각해 줄 여력이 없었다. 그렇게 몇 군데 공기업을 형편없이 떨어졌다. 그렇게 자신감 없이 인터넷강의를 듣다가 문득 나온 이야기가 맘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내가 농구선수라 가정하자. 경기를 이기고 싶으면 뭘 해야하지? 농구의 역사를 줄줄이 외우고 게임의 룰을 밑줄쳐가며 공부하면 경기에 도움이 될까? 아니 직접 농구 게임에 많이 나가봐야지. 뛰고 땀흘려봐야지.” 의자에 앉아 하루하루 열심히 해 온 내가 부정당한 기분이라 좋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은 줄곧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결국 마음속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나를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그래, 이 상황이라면 솔직히 내가 회사라도 나 안 쓰겠다. 각성하자.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그래서 난 중소기업 아웃바운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렇지만 단지 나를 안 뽑아줘서 포기하고 그곳을 택한 것만은 아니었다. 증명해보이고 싶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보통 아닙니다!” 나를 입증해 보이고 싶었고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1년 후엔 자신감이 생겨 다른 일에 도전해 보고 싶어졌다. 활동적인 프로모션 의류업체에 막내로 들어갔다. 동대문시장에서 눈으로 직접 이것저것 색감을 보고 재질을 느껴보고 제일 나은 것으로 샘플을 주문하고 다녔고 그 결과 지구력이 상승했다.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경험치가 쌓이면서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한 확신도 생겼다. 때론 고약하게 힘든일도 겪었지만 그럴수록 내 이야기들이 늘어가는 거라 적금통장 쌓는 것처럼 든든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돌아돌아 어느덧 30대가 되었고, 이제 다시 해볼까 하는 두렵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공기업의 문을 두드렸다. 내 마음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커리어를 쌓는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자격증 공부에 부족했던 탓에 번듯한 자격증이 없다는 것. 머리를 짝 쥐며 후회를 만끽했다. 왜 나는 두 개를 못하지? 6년 커리어 다졌으니 이제 6년 자격증 준비를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내가 나를 잘 어필하고 내 경험들을 답변에 잘 녹여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지 모른다면 나에게 최면 아닌 최면을 걸고 면접을 갔다. 다행히 상황면접에서 침착하게 답변했고 내 경험들과 질문들의 접점을 찾아 이야기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솔직히 이야기했다. 평온하고 당당하려 애썼다. 절실함이 혹 불쌍한 모습으로 어필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기도 했다. 마지막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나는 첫발을 내딜 수 있었다.

내가 서민금융진흥원을 선택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면접관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면접 막바지에 업무 관련 자격증을 말해보라며 간결하게 질문하셨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머리를 굴렸다. 없지만 뽑아주신다면 취득할 것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구구절절 나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려야 하나. 근데 그리 길게 고민하진 않았다. 아무리 멋지게 포장하려 해도 뭐가 있어야 포장을 하지 없는 건 없는 거다. “없습니다.” 나도 간결하게 대답을 드렸다. 면접관은 무뚝뚝하게 내 이력서에 뭔가를 체크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졌다. 내 대답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아닌 답변이 분명했다. 아 난 떨어졌구나. 아무리 상황을 녹여내고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면 뭐하나 증거가 부족할걸. 더 공부하자. 이 생각뿐이었다. 근데 면접관이 체크 후 무심하게 허공을 응시하며 한마디 했다. “없으면 와서 따면 되지” 이 말은 곧 나를 뽑겠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내뱉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내 멘탈은 살얼음 멘탈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말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며칠 후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고 다시 돌려 그때 면접관이 했던 말을 생각하니 지난 10년을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나의 상황과 비슷한 분들께 감히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일이든 생각할 시간에 행동으로 옮겨보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처도 여러 번 생기면 굳은살이 되어 버틸만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면접은 한군데만 정하지 말고 되도록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단련되어야 한다. 나는 병원, 집에서 너무 보살핌을 받아 망각했다. 사회는 다른 곳이란 것을. 나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난 동료와 함께 발맞추는 사람이고 싶다. 자격증 공부 이야기는 내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라 아직은 말을 아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공기업 취업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부디 이 글을 보게 될 모든 취준생들은 단기간에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이만 자격증 공부와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글을 마치지만 지금도 불편한 몸으로 공부하고 경험 중일 분들께 존경을 표하며 나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움에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공공기관 입사 수기공모 우수 사례집

블라인드·직무능력중심 채용 | 청년인턴
고졸 채용 | 지역인재 채용 | 장애인 채용

인 쇄 2021년 12월 23일

발 행 2021년 12월 31일

발행인 김 재 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 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인 쇄 경성문화사

ISBN 979-11-6655-088-1

